

7일 Market Index	
코스피 2328.20 (-137.22)	코스닥 651.30 (-36.09)
금리 (국고채 5년) 2.405 (-0.056)	환율 (달러) 1466.10 (+32.00)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코스피가 전 거래일(2465.42)보다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에 장을 마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

'슈퍼관세 폭탄' 여진 亞 증시 블랙 먼데이

'슈퍼 관세' 폭탄의 여진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의 'S(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R(recession, 경기침체)' 공포가 재점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5% 넘게 급락하자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1470원 가까이 떨어졌고, 원·엔 재정환율은 장 중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초반 5% 급락에 '사이드카' 5.57% 떨어진 2328.20에 마감
닛케이 -7.83%, 상해종합 -7.34%
원달러 환율 5년만에 최대폭 하락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떨어진 2328.20에 마감했다. 코스피 200선물지수가 1분 이상 5%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9시 12분께에는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8개 월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5분간 발동됐다. 지수 하락은 2조 2000억원 어치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주도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13면>

아시아 주요 증시도 줄줄이 내려앉았다. 이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 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44포인트(-7.83%) 빠진 3만 1136.58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만 자취안지수도 9.70%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34% 내렸다. 호주

ASX200지수는 4.23% 하락했다. 달러당 원화가치도 코로나19 이후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8원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33.7원 높다. 장중에는 1470원을 웃돌았다. 일본 엔 대비 원화 환율도 장 중 약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 선(오후 3시 30분 1008.21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 3월 22일 주간 종가(1011.75원) 이후 약 2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증시가 폭락한 건 미국 관세의 칼끝이 전세계 각국을 겨누고 있는 데다 그 여진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를 넓고 있어서다.

미국의 물가·소비지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를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시장 예상치(2.7%)를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 2%를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월(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전달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역전쟁이 격화일로에 접어들며 경기침체 공포, 이른바 'R의 공포'도 더욱 커졌다. JP모건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만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봤다.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중국의 맞불 관세 여파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도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6일(현지시간)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4.10% 내린 7만 9548달러에 거래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정의선의 '인디아 드림' 통합 R&D센터 개소

현대모비스, 하이데라바드 위치
IT기업 밀집, SW인재 확보 용이
글로벌 수주 확대 전략 요충지로

글로벌 수주 전략거점 육성현대모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각별히 공들이는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14억 인구 경제 대국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맞춤형 모델 출시와 전동화 추진 등을 통해 외연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정의선 회장이 인도 시장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는 물론 현대모비스도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다.

7일 현대모비스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텔랑가나주(州) 하이데라바드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 거점을 통합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 시장에서 기술 현지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모비스는 2007년 인도 연구소를 처음 설립했고, 2020년에 제2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번 인도종합연구소 개소는 이 두 연구소를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하이데라바드 제1,2 연구거점을 통합한 신규 인도연구소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인도연구소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통합연구소는 글로벌 주요 IT기업이 밀집한 상업 지역에 위치해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가 용이하다. 연면적 약 2만 4000m², 10층 규모 건물로 연구 공간과 데이터센터, 시험실과 교육실, 협력사 업무공간, 임직원 휴게 시설을 마련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인도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신차 판매량은 520만 대 수준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2028년에는 약 62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 소형차 중심에서 SUV나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차에 탑재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같은 자율주행 2단계 신기술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인도연구소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이곳을 글로벌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 요충지로 키운다.

현재 이곳에는 약 100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중인데, 인재를 지속해서 채용할 계획이다. 원가 경쟁력은 높이고, 성능 및 품질·기술 고도화를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글로벌 시장 제품 수주까지 맡는 센터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m-커버스토리

상호금융, 역대급 적자… 서민 버팀목 '흔들'

작년 새마을금고 순손실 1.7조
신협·수협 합산땐 2.4조 달해
부동산 불황 PF 위험성 드러나

새마을금고와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면서 서민금융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연체율 상승으로 대손총당금을 추가로 적립한 영향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관련기사 4면>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의 순손실은 1조 7382억원 규모다.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대손총당금 적립액이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대손총당금이란 금융회사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 놓은 자금이다. 대손총당금이 증가한 것은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6.81%다. 1년새 1.74%포인트(p) 상승했다. 총여신

잔액은 연간 4조 4000억원 줄어든 183조 7000억원 규모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2000억원, 4조 2000억원씩 줄었다. 기업대출 대비 리테일(소매금융) 비중을 더 많이 줄인 셈이다.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신협과 수협도 순손실을 거뒀다. 지난해 신협의 손실액은 341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수협은 손실액은 2200억원 가량 증가한 2725억원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의 합산 손실액은 2조 3526억원이다. 상호금융 출범 6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인은 부동산PF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1~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건물만을 리면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투자만 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고금리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대출금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는 상당수를 공동대출로 시행했다. 복수의 금고가 대출금을 출자한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공동대출자 상호금융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출범했다. 지난달 기준 PF 사업장 385곳이 매각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상호금융사의 사업장은 153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39.7%를 차지한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공동대출이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던 금고도 있다"라며 "지역 단위 협의회가 존재하다 보니 보수적인 금고라도 공동대출에서 빠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과 소상공인이 돈 빌릴 곳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메트로 한줄뉴스



▲국민의힘 윤리위, 대선일까지 윤리위 열지 않기로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15세 미만 희생자도 보상

/사진 뉴시스

▲한동훈 "이재명은 개헌 회피세력…내란종식은 맥락없는 핑계"
▲유승민 "국민의힘, 완전국민경선으로 가야 이재명 이길 수 있어"

▲대구 떠나는 흥준표 "금요일 사퇴한다"… 대선 출사표
▲김부겸 "개헌과 내란종식, 양자택일 문제 아냐… 이재명,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소비자 물가 '들썩'… 기후·정국·환율 '삼중고'에 부담 가중

통계청, 지난달 가공식품 3.6%↑
외식물가는 두달연속 3%대 상승

정부 리더십 부재에 가격관리 공백
새정부 출범 전 가격인상 가능성도

올해 들어 식품 기업들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원료값, 환율 등 가격변수 외에도 국정공백 여파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 물가도 3.0% 올라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품별로는 커피가 8.3%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어 빵(6.3%), 햄·베이컨(6.0%) 순이었다. 같은 가격 인상은 원부자재 비용 상승,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모습.

격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설불리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지류 가격 상승이 여전히 불안요인 있지만 최근들어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한 달 전보다 약 11.3% 하락했고, 코코아 선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중순 대비 44% 가까이 떨어졌다.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기후 상황 개선과 수요 감소, 합성 원료 사용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상 기업들은 가격 인상은 빠르지만 인하는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커피와 초콜릿 관련 제품 가격을 인상한 기업은 스타벅스, 폴바셋, 파스쿠찌, 네스프레소,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롯데월풀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하겐다즈 등 10여 곳이 넘는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업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을 명분 삼아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상은 기업의 실적 개선과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한 선제적 가격 전략이 아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멀거리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및 식품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망을 통한 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변화, 정국 혼란, 국제 물가 변동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인상된 식료품 가격이 단기간에 소비자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1대 대통령 선거 6월3일 잠정 확정

오늘 국무회의서 상정·의결 예정
내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60일째인 같은 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

보 겸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려나야 한다.

/서예진 기자 syj@

구직급여 '역대 최고'… 노동시장 '꽃샘추위'

고용노동부, 3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0.1% 증가 그쳐

건설업 가입자 20개월 연속 감소세
1인당 일자리 개수 '구인배수' 0.32

기업 채용은 감소하는 반면, 구직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시장에서 '꽃샘 추위'가 엄습한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0%)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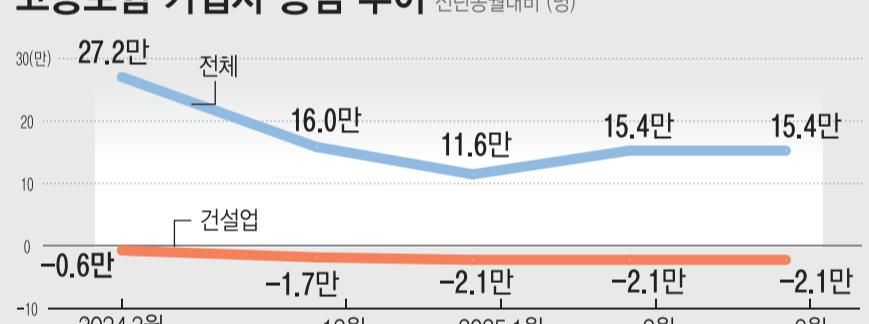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작년 11월부터 감소하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3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2만1000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지속 순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6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18개월째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감소 영향으로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감소, 2022년 9월 이후 31개월째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의 경우도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추이



구인·구직 증감



이어가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하며 정년 이후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5만6000명, 30대는 6만7000명 각각 늘었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2에 불과했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인인원은 48만명으로 6만3000명(15.2%) 증가했다.

이를 올해 1분기로 넓혀보면 1분기 구인배수는 0.33으로,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천 과장은 “최근 제조업 수출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51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15억원(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5.9%) 증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교육서비스업 신청자가 3000명(20.1%) 증가하는 등 1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4.6%)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현대차·기아, 5년간 100억 규모 투자 진행

» 1면 '정의선의 인디아 드림...'서 계속

이종근 현대모비스 인도연구소장(상무)은 “인도연구소의 넓은 개발자 풀(Pool)로 새로운 연구개발 시도를 활발히 하고,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촉진해 제품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2월 인도 최우수 공과대학 IIT와 손잡고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공동 연구 체계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IIT는 1951년 설립된 인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 기관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23개 캠퍼

스를 운영하며 혁신적인 연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IIT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를 설립, 2025년부터 5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배터리·전동화 관련 연구를 공동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및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협력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10월 현대차 인도 법인의 현지 증시 상장식에서 “협력과 동반성장의 정신에 기반해 현지화에 대한 협력도 지속하겠다”며 “인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R’ 공포 현실화… “향후 시장, 통화정책·보복관세가 좌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일주일 새 무려 4번의 크고 작은 ‘블랙 데이’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오가며 강타했다.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지역 구분도 없다. 모조리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형국이다. 2025년 새해의 문을 열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올해 최대의 악재로 전세계 시장을 휘저을 것이라 예상은 있었다. 하지만 “괜찮겠지”→“설마”→“아차”까지 불과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불안한 투자자가 자산 현금화에 나서면서 금융시스템이 요동치고, 관세전쟁의 여진이 글로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S(스태그 플레이션)’과 ‘R(recession, 경기침체)’ 공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국이 처한 상황, 대처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경제와 금융시장에 내상이 작지 않을 거로 보인다.

트럼프, 고강도 관세정책 강행
美 증시 연일 폭락… 전 세계 파장
“공급망 붕괴 등 영향 확대될 것”

◆ 과거 위기와 다른 ‘트럼프 스톰’

한국이 겪었던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복기하면 지금과 차이가 있다. 1987년 블랙먼데이는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자본시장 개방(1998년)이 늦었던 한국은 당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1998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중심의 위기였다. 한국내부의 부실한 금융시스템이 출발점이었고, 국내에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등 서구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러랜드하이츠의 한 아시아 식품점에 식료품들을 가득 실은 쇼핑 카트가 서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정책이 발표되고 가격 급등을 우려한 미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뉴스

으로 파장이 커졌다. 다만 국가별, 대륙별로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고, 회복도 빨랐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시기에도 전 세계적 시장이 출렁였다.

시장에선 이번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 전망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위험 자산 투자 규제가 강화돼 당시보다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게 핵심 근거다. 금융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펀드멘털은 좋다’와 같은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JP모건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만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1968년 아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복, 미국 기업의

심리 위축, 공급망 붕괴 등을 통해 이번 세금 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휘청이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이를 말해준다.

안젤로스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가 관세와 무역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주가 하락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나쁘고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펼쳐질 시장의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본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행)성은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라며 “향후 연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의 대폭적인 추가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시장 충격을 결정할 것은 유럽, 특히 중국의 대응”이라며 “중국은

이미 보복관세와 히토류 무기화 등을 발표했는데 보복관세는 1930년대 관세전쟁에서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으므로 경제에 추가로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美 등 주요국 통화정책 오락가락
韓 부담 가중… 성장률 ‘적신호’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해야”

◆ 韓, 관세전쟁 직격탄… 경제위기 그림자

미국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더 치명적이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뛰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

각국의 오락가락 통화정책도 우리경제에 부담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더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 변화를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기다리면서 관망하겠다는 기준 입장을 유지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연준 의장 파월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완벽한 시간”이라는 글을 올린 뒤에 나왔다. 3월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동결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후퇴하고 있다.

각국의 통화정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데 따른 글로벌 자금 흐름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더해지며 금융시장은 당분간 출렁일 가능성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뒷걸음질하는 성장률,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등 우리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결림돌이다. 영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리(Barclays)는 1.6%에서 1.4%, HSBC는 1.7%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S&P의 경우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2%로 무려 0.8%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당국, 100조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

금융상황점검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응방향 논의
“자금 공급 등 적시에 지원이뤄져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상황 점검 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가 출범 할 때까지 2개월 가량 남은 만큼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를 하는 등 금융 분야의 기능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을 적시에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

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준비·집행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일정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외여건 급격히 악화… 수출 하방 압력”

KDI “기업심리 위축되고 있어”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라, 수출을 비롯한 경제 각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상황과 관련해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됨에 따라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KDI의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은 지난 1월호 경제동향에서 2년 만에 처음 나온 뒤 4개월 연속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4월호에서는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

KDI 분석에 따르면 3월 수출 증가율은 전월(0.7%)보다 높았으나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점차 조정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ICT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8.5%에서 4분기 27.5%, 올해 1

분기 6.1% 등으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또 ICT와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월 0.8% 감소했다.

KDI는 “4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내수 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올해 설 연휴가 1월로 이동한 조업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 건설업 생산의 경우 21.0%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에서 73.1%로 미끄러졌다.

소비 부진 역시 지속됐다. 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에 비해 2.3%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반등으로 내구재(13.7%) 판매는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준내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는 감소했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7만 4000명)과 건설업(-16만 7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실업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PF 부실 직격탄… 서민금융 붕괴 위기, ‘돈맥경화’ 현실화

상호금융 적자 눈덩이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이 유래 없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상호금융의 대출 입지가 좁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자영 업자와 소상공인의 ‘돈맥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쳐면서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저축銀·상호금융 합산 손실액 4배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합산 손실액은 2조7118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5262억원) 대비 415.3% 증가했다. 이 중 손실이 가장 많이 확대된 곳은 새마을금고다. 지난 2023년 8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신협의 손실액은 3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순이익이 3630억원 감소했다. 이어 수협의 적자는 연간 2150억원 증가한 2725억원이다. 2년 연속 흑자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저축은행 또한 39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5758억원)보다는 줄어들었다.

손실의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미완공 사업장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공매에 착수한 PF사업장 중 미완공 된 사업장은 246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63.9%에 달한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서 NP(L부실채권)이 증가했다. 통상 만기 후



서민금융기관이 부동산 사업에 눈을 돌리면서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경기한파가 지속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민경제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뉴스

수조원 충당금에도 손실 확대
새마을금고·신협 등 적자 기록
가계대출 축소 급전 통로 차단
서민경제 자금 흐름 ‘꽉’ 막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NPL로 분류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 인식된다. 향후 연체율이 낮아지면 순이익으로 환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충당금을 쌓은 곳은 새마을금고다. 연간 7조원 가량의 자금을 축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3조 7101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협은 6500억원, 수협은 800억원을 적립했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이 그 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 “급한불 끄자”…상호금융, 대출 ↓

지난해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규모

를 축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협을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사가 가계대출 공급을 줄였다. 적자를 낸 상호금융사 중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신협으로 연간 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조원 감소했다.

문제는 리테일(소매금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늘리고 소규모 신용대출은 축소했다. 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둔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주담대로 눈을 돌린 것. 통상 상호금융 신용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용 비중이 높다. 서민금융 기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 납입이 장기간 이뤄지는

건전성 위주로 대출 구조 재편
중저신용층, 불법사금융 우려
준법감시·내부통제 강화 시급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 되살려야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쟁길 수 있다”며 “신용대출이나 급전대출의 경우 연체 가능성도 높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애써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동안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8%~3.8% 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

이지만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가 줍ается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서민

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호금융, 체질개선 필요”

금융업계는 위기를 극복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건전성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업권별 규제 강화와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인 영업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고별 준법감시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별 조합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규모가 더 큰 만큼 ‘동일 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업권별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디지털 전환(DT)과 오프라인 영업을 함께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만큼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운용 규제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을 유도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론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단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적합하다는 것.

구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는 데다 자산규모 1조원을 넘긴 대형 조합도 있다”며 “상호금융에 맞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물가·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 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美 관세發 물가 압력, 목표치 초과
환율 1470원 돌파… 원화약세 지속
토지거래 해제에 대출 증가세 뚜렷
내수 부진 속 5월 인하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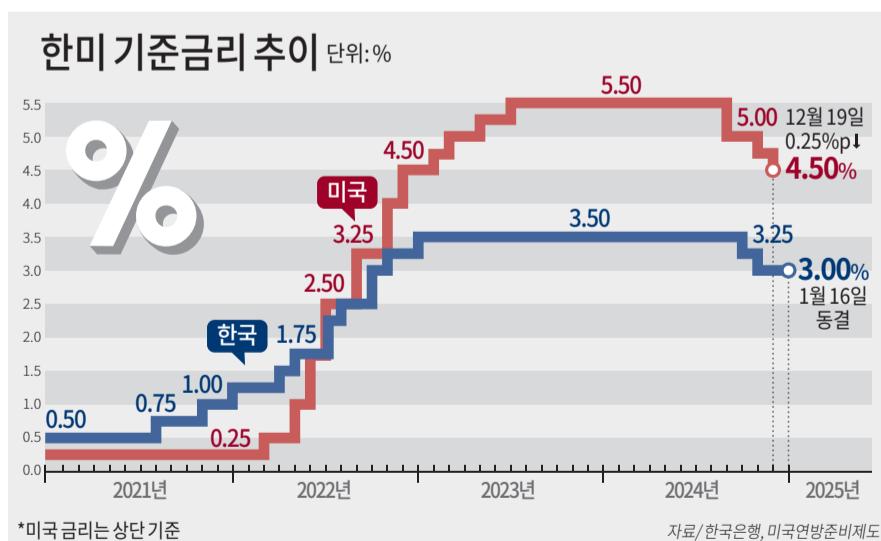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1460원대를 웃돌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시치를 두고 반영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 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춘 뒤 그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美 관세정책에 흔들리는 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탓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2.0%)를 하회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과 미국의 세금관세는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462원에장을 시작했지만, 오전 한 때 1470원을 넘어서졌다. 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오후 3시 30분 기준

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가계대출은 738조5511억원으로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 1월 733조 6589억원으로 전월 대비 4762억원 하락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 국장은 금융안정상황 발표에서 “도하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2월 중순 이후에 들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에…5월 금리인하 예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동결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기업의 자금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상 금리를 내려 자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93.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소비자들의 쇼핑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2020년(100)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한다. 10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

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개선도 어려운 상태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미분양이 늘면서 당분간 역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부채 증가 반면 가계 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932조 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9.5%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할 경우 가계·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금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격은 하락해 소비 투자 등 경기 개선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협상의 여지,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 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nergy extenxion
extenxion of SK Innovation

“SK”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與 “국회권한 조정해야” vs 野 “개헌보다 내란종식 집중”

우원식, ‘조기대선·국민투표’ 제안
李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권영세 “예상 못한 제왕적 국회 출현
여소야대 구조 고착화 시 국정 마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 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 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지

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 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리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여러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정치권에서 쟁점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이를 개헌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안만 1차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우의장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의 적기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 사안 여야 합의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국민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의장의 제안은 친명(친이재명)계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

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며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란뿐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개헌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에는 동의했어도 구체적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고 대선 전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은 내란종

국민의힘, 친윤계 지도부 유지… 소장파 “이대로면 대선 백전백패”

지도부 ‘책임론’에도 재신임 추인
오히려 탄핵찬성파 조치 필요성 거론
尹 손절 않고 장외정치 시 대선 불리

‘투톱’을 이루고 있다.

현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까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당을 결집했으나,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계·출당 요구와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오히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찬탄파(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도부에 관련 사항을 일임하기로 했다. 당은 조기 대선 까지 두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오를 단결해 반(反)민주당·이재명을 기치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지도부를 재신임 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주며 당을 위기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징계의 대

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윤상현·나경원·조배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선거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장외 정치를 허용하는 순간 대선은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조기 대선이 끝난 후에도 출당 및 제명 조치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2017년 11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했다.

탄핵 찬성파이자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을 두고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당에 부담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태홍 기자

파면된尹, 퇴거 없이 ‘관저정치’ 지속

주말동안 국민의힘 주요인사 차단
극렬 지지층 향한 메시지 발신

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남동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경호 계획 수립 등에 시일이 걸려 더 빠르게 퇴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소식 대신, 관저에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 오후에는 국민의 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

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질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 “어려운 시기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계속 발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당일인 4일과 6일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층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는 지지세력 결집을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저로 돌아가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내정

총 11명으로 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준비할 당 선관위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에 맡고,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 부위원장에 맡는다. 선관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위원장 선임 배경에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인 인천에서 5선을 하고 당을 위해 오래 봉사했던 황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는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인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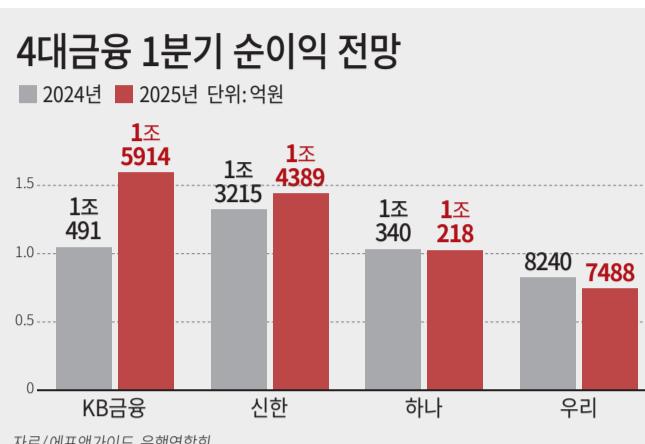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이자장사 잘했다”… 4대금융, 1분기 순익 4.8조 ‘역대급’

지난해 대비 13.5%, 5723억 늘어 KB금융, 전년비 52% 늘어 1.6조 신한금융, 1175억 오른 1.4조 예상 하나·우리 각각 122억·752억 감소 예대금리차 확대, 이자이익 더 늘듯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6000 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대출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늘었지만 핵심 자회사인 은행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금융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전망치는 총 4조8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순이익(4조2286억원) 보다 5723억원(13.5%) 증가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모회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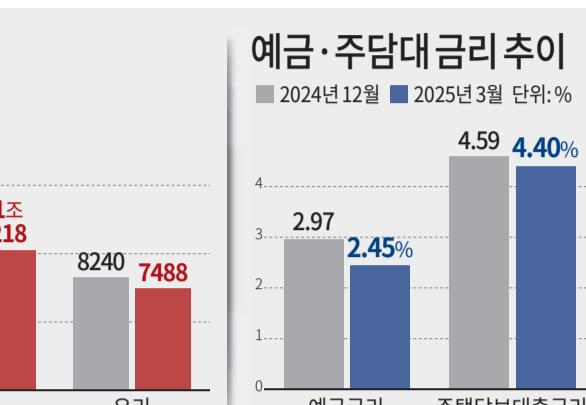


순이익과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자회사 순이익을 더한 값이다.

◆ 은행 이자이익 양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5914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억491억원)과 비교해 5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174억원 오른 1조 4389억원으로 예상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성장은 부진하지만 기업대출이 성장



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중금리 하락에도 원화대출이 0.7% 성장하고,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1bp(0.01%포인트) 상승하며 양호한 순이익을 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1분기 1조218억원, 748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2억원, 7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의 경우 홈플러스와 신동아 건설

에 대한 의스포저(위험노출액)가 각각 270억원, 320억원이다”라며 “주로 비이자이익 및 충당금 전입액을 조정하면서 순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고정

4대금융의 순이익 중 이자이익에 대한 손실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은행의 이자이익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 3.00%에서

2.75%로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돼 이자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4대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만기 10년 이상) 금리는 평균 4.39%로 지난해 말(4.58%)보다 0.19%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4대은행의 기본 예금금리는 평균 2.45%로 한달 전 4대은행이 취급한 평균금리(2.97%)보다 0.52%p 떨어진 상태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예금금리가 더 떨어졌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말 평균 1.2%에서 1.41%로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전환하고 있다”며 “주담대 금리의 경우 우대금리를 더하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은행, 일자리 주선 ‘외국인 고객’ 공략

외국인 앱 ‘우리WON글로벌’ 보강
앱 내에 한국어능력시험 강의 오픈
상반기 중 일자리 플랫폼 구축키로

우리은행이 ‘외국인 고객’ 공략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명을 기록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상해서다. 우리은행은 자사 외국인 고객용 앱의 기능을 개선해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자사 외국인 고객용 모바일 앱 ‘우리 WON글로벌’을 보강하고 있다. 출시 당시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송금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앱 내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강의를 오픈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외국인 고객용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리은행이 준비 중인 일자리 정보 플랫폼은 외국인 고객이 구직·이직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언어 장벽과 정

보 부족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우리WON글로벌’에서 서비스 중인 17개 언어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잡코리아, 인크루트를 비롯한 4개 이상의 취업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세인 만큼,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외국인 고객 대상 서비스 확대에 힘쓰는 것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잠재성 높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명이다. 이는 기존에 역대 최대 외국인 수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 약 13만명 늘어난 규모로, 같은 기간 내국인 인구인 5122만명의 5.17%에 해당한다. 이 중 장기 체류자(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

국인)의 비중은 77%를 기록했고, 직업 활동이 활발한 20~40대의 비중도 65.6%에 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의 E7(숙련기능)·E9(단순업무) 비자 발급 규모를 확대했다.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꾸준히 늘린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환전·해외송금 등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만큼, 금융권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의성 높은 잠재적 고객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한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고객 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형태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라며 “우리WON글로벌에서는 일반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직군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할 계획으로, 유관 업체와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생명 보험업무 디지털화 이미지. /삼성생명

삼성생명, 보험거래 모든과정 ‘디지털화’

‘다자간 영상 상담 시스템’ 도입

삼성생명은 계약변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유지, 지급 단계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신계약 가입 프로세스 디지털화에 이어 이제 보험 거래의 모든 단계가 종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진다.

삼성생명은 ‘다자간 영상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계약자 변경이나 사고보험금 청구 등 기존에 플라자나 지점 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영상 상담을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디지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서류 작성부터 신청, 처리까지 직접 터치모니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급상승에 ‘분상제’ 단지만 인기

분상제 단지 1순위 경쟁률 42대1
미적용 단지 청약은 6대1에 불과

치솟는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다른 단지 대비 약 7배 가량 높았다. 작년 청약 진행한 단지는 전국 295곳이다. 이 가운데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48곳, 적용되지 않은 곳은 247곳이었다.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의 일반공급가 구수(특별공급 제외)는 2만896가구다. 1순위 청약에만 87만9165건이 접수돼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일반분양 10만1758가구에 1순위 청약자 62만6500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6대 1에 불과했다.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파주 동파동 GTX운정역이지더원(60대 1),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아테라(30대 1) 등이 경쟁률이 높았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

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들이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m²당 분양가는 2053만원을 기록했다. 과거 3.3m²당 분양기가 1000만원을 처음 돌파한 2016년(1050만원)과 비교하면 8년 새 2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가 수도 88.36에서 130.12로 크게 뛰었다.

올해도 분양가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6월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증간소음 규제 등으로 공사비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청년 1666호 등 전국에 총 3003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00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337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

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 임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예약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안상미 기자

삼성전자, 차세대 AI TV 공개…‘개인 맞춤형 시대’ 선언

언박스&디스커버 2025

대형·이동형 등 주요 키워드 제시
Neo QLED 등 라인업 대폭 확대
영상 시청 넘어 새로운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의 2025년형 TV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개인 맞춤형 TV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사용자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파악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7일 서울 서초구 ‘삼성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언박스&디스커버 2025’를 열고 차세대 AI TV 라인업을 공개했다. 주요 키워드는 ▲AI 기반 개인화 ▲대형·이동형 스크린 확대 ▲차별화된 시청 환경이다.

삼성 AI TV는 ‘AI 흡’, ‘AI 어시스-



삼성전자 용석우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언박스&디스커버 2025’에서 2025년 TV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턴트’, ‘AI 시청 최적화’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AI 흡’의 ‘홈 인사이트’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실내 환경 등을 분석해 에어컨이

나 공기청정기 작동을 자동 제안한다. ‘AI 흡’의 ‘홈 모니터링’은 외출 중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실시간 알림을 보내 준다.

‘AI 어시스턴트’는 ‘실시간 자막 번역’과 시청 중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 추천 및 출연 배우, 프로그램 관련 정보 까지 확인할 수 있는 ‘클릭 투 서치’를 제공한다. ‘AI 시청 최적화’ 기능을 통해 저해상도 콘텐츠를 고화질로 업스케일링하고, 디테일, 입체감, 명암비를 향상시키는 ‘리마스터링’ 기능도 장면에 따라 자동 적용한다.

삼성은 AI TV 라인업을 기존 34개에서 61개 모델로 대폭 늘렸다. OLED는 42~83형, Neo QLED는 100·115형 초대형 모델까지 포함됐다. 또 기존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 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도 다양한 제품에 적용돼 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터치 인터랙션(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도 업계 최초로 탑재해 약 43cm

거리에서 최대 100형 대화면을 구현 한다. 사운드바인 2025년형 ‘Q시리즈’는 서브우퍼 크기를 기존보다 58% 줄이면서 강력한 저음을 구현한다. 설치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소리를 최적화하는 ‘컨버터블 사운드바’도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매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와 사운드바, 슬림핏 카메라 등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5년형 Neo QLED 8K 출고가는 최상위 시리즈(QNF990) 기준 ▲98형 5040만 원 ▲85형 1620만 원이다. Neo QLED 출고가는 QNF95 시리즈 기준 ▲85형 789만 원 ▲75형 639만 원이다. 115형, 100형 모델은 추후 출시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그룹, 창립 72주년… 도전·실용경영 박차

최태원 회장, 선대 도전정신 계승
공격적 투자 앞세워 재계 2위 성장

SK그룹이 8일 창립 72주년을 맞았다. 지난 1953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닭표’ 안감을 개발한 선경직물로 시작한 SK그룹은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SK그룹은 올해도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룹 창립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실용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창립기념일 등 연례행사를 최소화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건 창업회장은 지난 1953년 한국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부품을 재조립해 선경직물을 설립했다. 지난 1955년에는 물에 빨아도 안감이 줄지 않는 ‘닭표’ 안감을 개발해 국내 시장을 장악, 이후 ‘봉황새 이불감’도 날개 돋친 듯 팔리며 섬유업계에서 이름을 높였다.

선경직물은 국내 최초로 섬유수출에 성공한 후 지난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최종건 창업회장의 별세 후 최종현 선대 회장은 지난 1980년대에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 1994년에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등을 연이어 인수해 석유·



지난 1967년 아세테이트 공장 기공식에서 최종건 창업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최종현 선대회장(여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이동통신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코드 분할다중접속) 디지털 이동전화를 상용화해 국내 최대 통신 업체를 키워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 미래 먹거리로 판단되는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재계 2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는 인수 당시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연간 2000억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부실기업이었다. SK 내부에서도 불투명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두고 무리한 투자라며 반대가 심했지만 최회장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경영진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이뤄냈다.

2012년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대부

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도 SK는 매년 조 단위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했고, M14와 M16을 비롯한 신규 메모리반도체 공장도 적극 건설했다.

이후 반도체용 특수ガ스(SK머티리얼즈)와 웨이퍼(SK실트론) 회사를 인수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 반도체 연관제품을 전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인수 10년 만에 매출 4배, 시가총액이 6배 상승하며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선대의 유지를 반들여 선대의 도전과 위기극복 정신으로 SK그룹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

최준용 부사장 “HBM4E 적기 공급할 것”

(SK하이닉스)

“글로벌 HBM 시장 리더십 공고히”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기획을 이끄는 최준용 부사장(사진)이 “HBM4 12단 양산은 물론, HBM4E도 적기에 공급해 글로벌 HBM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 부사장은 이날 SK하이닉스 뉴스



룸 인터뷰에서 “고객의 특화된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으로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1982년생인 최 부사장은 지난해 말 임원 인사에서 HBM사업기획을 총괄

하는 최연소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모바일 D램 상품기획팀장을 거쳐 HBM 사업 성장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HBM 시장을 선도해온 주역 중 하나다.

HBM사업기획 조직은 제품 기획,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글로벌 고객 전략 마련 등 HBM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최 부사장은 “HBM 시장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최적화된 사업 기획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LG전자 실적 추이

■ 매출 ■ 영업이익 연결기준, 단위: 조원



LG, 'OLED TV' 유럽 8개국 상륙 AI·화질 앞세워 글로벌 1위 굳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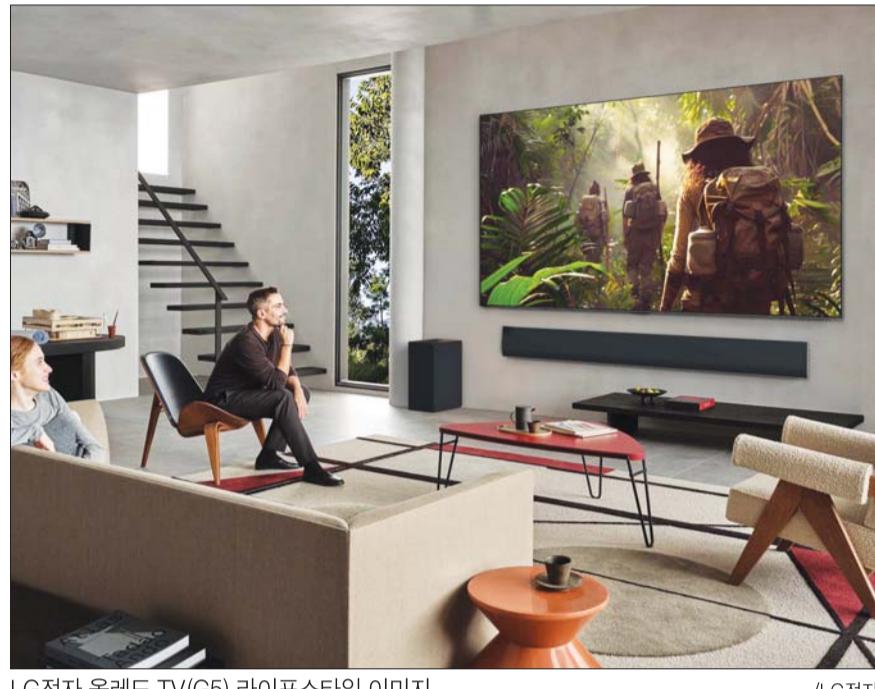
유럽 8개국 2025년형 신제품 출시 AI·밝기 등 사용자 경험 대폭 강화 현지 매체 “올해 최고의 TV” 호평 점유율 52%, 12년 연속 1위 기록

LG전자는 2025년형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유럽 8개국에 본격 출시하며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초부터 영국, 독일, 스위스, 평가리 등 유럽 주요 8개국에서 2025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북미, 한국에 이어 유럽까지 판매 지역을 확대하며 전체 출시 국가는 20여개로 늘었다. LG전자는 향후 전 세계 150개국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형 올레드 TV는 42형부터 97형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모델인 올레드 애보(M5·G5·C5)와 일반형 모델인 B5 시리즈로 운영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5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했다. 주요 기능은 ▲사용자 맞춤형 키워드를 제안하는 ‘AI 컨시어지’ ▲고객 의도를 추론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서치’ ▲간단한 문제해결을 돋는 ‘AI 챗봇’ ▲취향에 맞는 화면·음향 설정을 지원하는 ‘AI 맞춤 화면·사운드 마법사’ ▲음성으로 사용자를 구분해 맞춤 환경을 제공하는 ‘보이



LG전자 올레드 TV(G5)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LG전자

스 ID’ 등이다. 이 모든 기능은 매직 리모컨 전용 버튼으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화면 밝기도 기존보다 3배 이상 밝아졌다. 디스플레이 알고리즘과 유기 화합물 적층 구조를 바꾼 새로운 밝기 향상 기술이 적용됐다.

해외 유력 매체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프랑스 정보기술(IT) 매체 ‘레뉴메리끄’는 LG 올레드 애보(G5)에 5점 만점에 5점을 주며 “뛰어난 화질, 우수한 게이밍 성능, 높은 수준의 최대 휴드 등을 제공하는 2025년 최고의 TV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영국 TV 리뷰 전문 매체 HDTV Te

st 역시 유튜브 LG 올레드 애보(G5) 리뷰 영상에서 “강렬한 태양과 태양을 둘러싼 주위의 구름 디테일까지 보여주는 TV”라며 “높은 휴도와 정확한 색상 표현력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52.4% 점유율로 12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앞세워 13년 연속 1위 달성과 함께 프리미엄 TV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함께뛰는 기부, 아이들에게 희망될 것”

인터뷰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사장



“누구를 돋겠냐고 물어보면 항상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음 한 중심에는 아동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꿈을 만들 어내고 그 꿈을 달성하는데 지원하고 싶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사장(사진)은 제12회 기브앤레이스 행사 전날인 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마티아스 사장은 “기브앤레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불우이웃을 돋고 돈으로 기부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일종의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특별한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브앤레이스 이외에도 약 70개 정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회공헌 활동들 역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든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벤츠가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기업시민의 하나로써 책임을

기브앤레이스 12회째 이어져 누적 기부 76억·14만명 참여 “받은 사랑, 나눔으로 돌려줘야”

코로나19 당시에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할 만큼 참가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다. 참가자 1인당 5만원의 참가비 전액이 기부금으로 사용되며, 12회 행사 기준 누적 참가자 약 14만 5000명, 누적 기부금 약 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기부금도 아동학대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벤츠의 진심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는 글로벌 지

다하고 받은 사랑을 환원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기브앤레이스 슬로건처럼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뛰자’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브앤레이스는 벤츠코리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다.

기브앤레이스 12회째 이어져 누적 기부 76억·14만명 참여 “받은 사랑, 나눔으로 돌려줘야”

마이아스 사장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선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GM, ‘액티언’으로 독일 공략 가속화

프랑크푸르트서 론칭 행사 개최

KGM 모빌리티(KGM)가 액티언을 론칭하고 시승 행사를 갖는 등 독일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

KGM은 지난 3, 4일(현지시간) 독일 중부 해세주 베츨라시 라이츠파크의 목적 전시관 라이카 베츨라에서 기자단과 인플루언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티언 론칭 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액티언 제품 설명과 함께 시승 행사 그리고 스마트 폰을 활용한 활용기법 강의와 트렁크 파티(액티언 트렁크 안에서 식사 & 디제잉(DJ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GM은 이번 론칭을 시작으로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액티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모델의 추가 론칭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기자단은 뛰어난 주행 성능과 조용한 승차감 그리고 넉넉한 실내 공간은 물론 쿠페 스타일의 세련된 외관에 오프로드 감성까지 담은 액티언의 상품성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KGM이 액티언 출시·시승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독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KGM 모빌리티

KGM은 지난해 독일에 유럽 직영 판매법인을 설치했으며, 현지 마케팅과 판매, 고객 관리 및 서비스까지 전방위 사업 체계를 통해 독일과 유럽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물론 판매 전략 등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이번 액티언 론칭은 유럽 판매법인 설립 후 새로운 KGM 브랜드로 갖는 첫 제품 출시 행사를 현지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번 론칭을 시작으로 무쏘 EV 등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함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독일은 물론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BMW, 전기쿠페 ‘뉴 i4’ 질주 본능 깨우다

M 스포츠·프로 2개 트림 출시
420km 달리는 전기 그란 쿠페



BMW 코리아가 프리미엄 순수전기 그란 쿠페 ‘뉴 i4 eDrive40’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BMW i4는 프리미엄 브랜드 최초의 중형 순수전기 그란 쿠페다. BMW 고유의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4-도어 쿠페만의 우아한 디자인, 그리고 장거리 여정을 완벽히 지원하는 공간 활용성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부분변경 모델인 뉴 i4는 내외관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도입해 스포티한 매력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국내 시장에는 ▲i4 eDrive40 M 스포츠 ▲i4 eDrive40 M 스포츠 프로 등 두 개 트림으로 출시한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3.5% 적용 시 뉴 i4 eDrive40 M 스포츠가 7830만원, 뉴 i4 eDrive40 M 스포츠 프로가 8450만원이다.

뉴 i4 eDrive40는 전면부에 새로운

세로형 주간주행등이 적용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와 세련된 마름모 패턴의 BMW 키드니 그릴을 장착했다. 앞 범퍼 양쪽의 수직형 에어커튼과 조화를 이뤄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후면부에는 스포티함을 더할 정도로 입체적인 그래픽이 돋보이는 레이저 리어라이트가 적용됐다.

실내에는 D컷 스타일의 M 가죽 스티어링 휠과 은은한 간접 조명이 들어간 일루미네이티드 에어벤트를 도입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뉴 i4 eDrive40 제원은 전장 4785mm, 전폭 1850mm, 전고 1450mm, 휠베이스(축거)는 2855mm다. /이승용 기자

청호나이스, 봄맞이 ‘매트리스 프로모션’

이달 한 달간 매트리스 4종 할인

청호나이스가 4월 한 달간 매트리스 대상 ‘새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매트리스 렌탈료 매달 최대 5000원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William J ▲듀얼드림 ▲듀얼코지 ▲온리드림 총 4종이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 항균 방수 커버, 클 스킨 패드를 제공하고 과운데 이션 또는 프레임과 함께 구매 시 메모리폼 베개를 추가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청호나이스는 수면의 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2월 신규 매트리스 라인을 선보였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 중 William J는 고품질 린넨, 방수, 난연 원단이 적용된 삼중 프리미엄 원단으로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티타늄 포켓스프링으로 구성해 지지력이 강하다.

여기에 고탄성 9존 밸런스폼과 고밀도 메모리폼을 더해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한 토퍼분리형 모델로 일체형 구조의 모델보다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종=김승호 기자 bada@



칠레 최정상의 아이콘 와인

몬테스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친구같은 AI로 우울감 개선” vs “오히려 외로움 커질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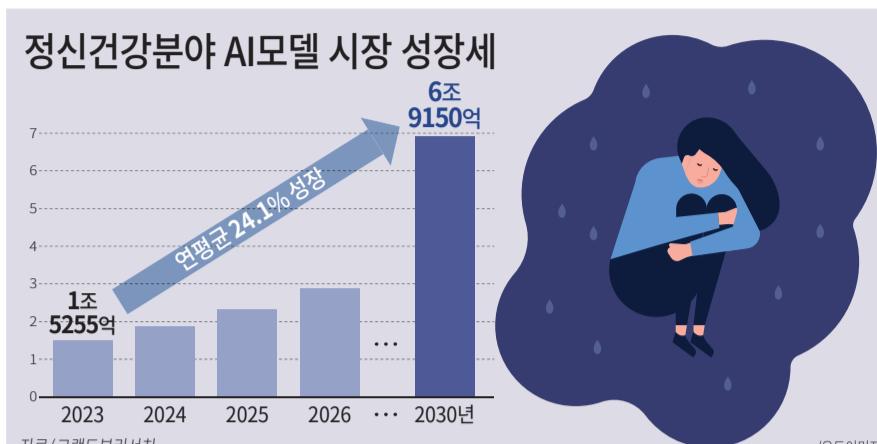
정신건강분야 AI모델 시장규모
2030년까지 年 24.1% 고성장세

NEJM “우울장애 병증 51% 개선”
오픈 AI “챗GPT 유대감 형성 때
외로움 느끼고 의존 가능성 높아”

정신질환 치료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한 치료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AI 의존이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AI를 ‘도구’로써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신 건강 분야 AI 모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신 건강 AI 모델 시장은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위한 진단 도구부터 임상 진료의 보조적 역할을 해낼 인지 치료 AI 모델까지 넓게 포함한다.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정신 건강 분야 AI 모델 시장 규모는 약 11억3000만달러(1조5255억원)로 추산되며, 2024년부터 2030년 까지 연평균 24.1%의 고성장세를 이어가 2030년 51억2200만달러(6조91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2022년 오픈 AI의 챗GPT 등장 이후 인간과 구분이 어려운 대화형 AI 챗봇들이 등장하며 치료 보조 수단으로써의 AI 모델 시장이 활성화 했다.

최근에는 대화형 AI 모델이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세계적인 권위의 의학 학술지 NEJM이 지난달 실은 연구에 따르면 테라봇(Thera Bot)의 정신질환 치료 AI 모델 테라봇을 이용한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이 치료 후 병증이 51% 개선됐다.

106명의 정신질환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테라봇과 상호 작용해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응답을 입력하거나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를 나눴다. 범

불안장애 참가자는 증상이 평균 31% 감소했으며 혼식장애 고위험군 환자들 또한 사용 후 신체 이미지와 체중에 대한 우려가 평균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이끈 니콜라스 제이콥슨 닥터스대학 데이터 과학·정신의학과 교수는 “우리가 관찰한 증상 개선은 기준 외래 환자 치료에 대해 보고된 것과 유사했으며, 이는 이 AI 지원 접근 방식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사람들은 테라봇과 관계를 형성하고, AI 모델을 친구처럼 대했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 WHO도 AI 기술을 활용한 정신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WHO는 2024년 4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헬스 프로토 타입 ‘사라(SARAH)’를 공개했다. 사라는 고도화된 공감형 반응 기능을 탑재한 생성 AI로,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대화를 제공하며, 현재 8개 언어를 지원하고 모든 기

기에서 이용 가능하다. 반면 정반대의 실험결과도 나왔다. 오픈AI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미디어랩이 지난달 발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챗GPT와 유대감을 형성한 참가자가 다른 사람보다 외로움을 느끼고 AI에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발견했다.

유대감을 형성한 참가자는 챗GPT를 사용한 시간이 상위 10%에 해당했다. 음성 기반의 대화형 AI인 챗봇은 텍스트 기반의 챗GPT에 비해 비교적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듯 보였지만, 더 많은 사람 이 챗봇을 사용하면서 ‘차별화’된 이점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도어 코스코 옥스퍼드 대학 박사는 “AI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추가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AI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배민, 리뷰에 ‘내란·탄핵’ 등 키워드 검열

배민 “필터링 시점 설명 어려워”
尹 취임식 때 당시 대표 참석 사실에
정치색 비판, 불매 운동 조짐 일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포장 주문에 약 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데 이어 ‘현재’, ‘내란’, ‘수괴’, ‘탄핵’ 등과 같은 특정 단어를 리뷰에 쓸 수 없도록 조치해 게시글을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돼 불매 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배민 앱에서 ‘현재’, ‘내란’, ‘수괴’, ‘탄핵’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리뷰 작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날 기자가 해당 금지어들이 실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내란’, ‘수괴’, ‘탄핵’ 등의 단어를 포함한 리뷰를 작성해 게시글을 시도하자 “‘현재’ 키워드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문구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경고문이 떴다. 이어 ‘내란’, ‘수괴’, ‘탄핵’이란 단어도 입력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반면, 같은 날 쿠팡이츠에서는 ‘현재·내란·수괴·탄핵’ 총 4개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리뷰 글 게시가 가능했고, 배민 앱처럼 별도의 제지도 없었다.

배민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약관 제



7일 기자가 배달의민족 앱에 접속해 ‘현재’, ‘내란’, ‘수괴’, ‘탄핵’ 등의 단어를 포함한 리뷰를 올리려고 하자 “해당 키워드는 입력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나타났다.

/배민 앱 캡처

11조 2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언급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사전에 금지어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후 모니터링과 제보를 기반으로 한 수정·삭제 조치 등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어떤 단어들을, 언제부터 리뷰에 쓰지 못하도록 조치했는지’를 묻는 말에 배민 관계자는 “당사 리뷰 정책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 없는 정치적, 사회적 키워드를 사전 및 사후 필터링 조치를 한다”며 “특정 키워드의 필터링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지난 5일 한 배민 사용자는 X(구 트위터)에 “탄핵이라는 단어 못 쓰게 해서

탄핵부기(‘탄핵’과 햄버거를 장난스럽게 부르는 신조어 ‘햄부기’의 합성어) 먹었다고 썼는데 수칙 위반했다고 리뷰 삭제 알림 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리뷰를 올린 사용자는 배달의민족 클린 리뷰 정책에 위배돼 블라인드 처리됐으며, 30일 뒤 자동 삭제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후 2시8분 기준 조회수 68만800회, 리트윗수 1만 2000회, 좋아요수 7800개, 북마크수 207건을 기록했다. 그는 “시키려는 가게가 배민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켰다가 영구 삭제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 포스트에는 “배민 탈퇴 오늘 바로 했어요”, “배민 바로 삭제”, “배민 영원히 안녕”, “난 요즘 땅겨요 씀. 윤석열 지지자 꺼 못 씀!”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2022년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당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과거의 일까지 들춰지며 배민 플랫폼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앱이 정치색을 띠고 리뷰를 검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다른 IT(정보기술) 플랫폼 업체 대표들과 함께 초대돼 취임식에 간 것이다”며 “정치색이랑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기자 hik1@

SKT, ‘외식·엔터·뷰티’ 멤버십 제휴처 확대

SPC 해피오더, 백미당 등 신규 제휴

SK텔레콤이 자사 멤버십 서비스 ‘T멤버십’의 제휴처를 확대하며 외식·엔터·뷰티 분야 혜택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7일 ▲SPC 해피오더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스킨케어 브

랜드 셀프전시 등과 신규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SPC그룹의 배달·피업 플랫폼 ‘해피오더’에서는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무료 배달 및 1일 1회 최대 5000원 한도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 적용 브랜드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쉐이크쉑 등 SPC 계

열 12개다.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에서도 전 메뉴 10% 할인이 적용된다.

혜택도 강화됐다. T멤버십 고객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의 아쿠아스파 ‘씨메르’와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 입장권을 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현장 발권 시 사용 가능하다.

뷰티 부문에서는 스킨케어 브랜드 셀프전시 전 제품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론칭 이후 총 234만명 고객 쿠폰 이용

LG유플러스가 지난해 4월 ‘유플투뿔’ 론칭 이후 총 1100만건에 달하는 할인 쿠폰을 발급해 234만명의 고객이 이를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유플투뿔은 매월 특정일에 제휴처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누적 141개 제휴처가 제공됐다. 월평균 44개의 혜택이 운영됐으며, 고객 1인당 월 4,7개 쿠폰을 내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CGV, 다이소, GS25 등은 매월 빠짐 없이 혜택을 제공한 대표 제휴사로, 연령대별 인기 제휴처는 ▲10대 GS25, CGV ▲20대 파스쿠찌 ▲30~40대 아웃백·노브랜드·VIPS 등이었다.

4월에는 문화와 나들이에 초점을 맞춘 혜택이 추가됐다. 대표 혜택으로는

▲스와로브스키 주얼리 스타일링 체험 (커피 포함) ▲레고랜드 2+1 입장권 ▲뮤지엄L 1+1 입장권 ▲CGV 클라이밍 존 50% 할인 등이 있다. 아웃백(25% 할인), 롯데렌터카, 투루카 등의 나들이용 할인도 마련됐다.

신규 제휴처 혜택도 마련됐다. ▲15일 청기와타운 10% 할인 ▲16일 컴포즈커피(VVIP 대상) ▲17일 풀무원 9천원 할인 등이 제공된다.

유플투뿔 1주년 기념으로는 고객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VIP/VVIP 고객은 원하는 쿠폰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총 3만명에게 다이소 금액권, 메가커피 쿠폰, 카카오페이 캐시 등이 제공된다. 별도 키워드 검색 이벤트도 운영되며, LG 스탠바이미2, 도미노피자, 디저트 경품이 마련됐다.

/김서현 기자

LG CNS, 1300억 규모 AX 사업 수주

미래에셋생명보험 플랫폼 구축

LG CNS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규모는 약 1300억원이며, 약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LG CNS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현 ▲보험 상품 개발·보험 계약·입출금 관리를 포함한 주요 업무 ▲회계, 영업 관리 등의 업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본 사업을 통해 LG CNS는 미래에셋 생명 임직원들이 사내에서 활용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에셋 생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거대언어모델(LLM)에 학습시켜 임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찾아 액



현신군 LG CNS 사장(오른쪽)과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이 AX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 CNS

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돋는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임직원들은 업무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여러 사내 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AI에게 질문하면 사내 지식 기반의 최적화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조기 대선 노리는 단타족… 정치·정책 테마주 ‘주의보’

상지건설·경남스틸 등 상한가 소문으로 주가 상승… 베팅 없어 “자칫 올라타다가는 돈 잃기 쉬워”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정책 테마주들이 때아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국이 어수선한 걸 틈타 한몫 챙기려는 단타족들의 등장이다. 이런 종목들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이른바 ‘꾼(투기세력)들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그 틈을 빠지고 들어가거나, 흐름에 올라타다가는 돈을 잃기 쉽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이날 상한가 (+29.97%)를 기록했다. 기본소득 공약과 맞물려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는 코나아이도 27.78% 상승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를 위해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흥준표 대



Chat GPT로 생성한 ‘조기대선 관련 정책주, 정치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구시장 관련주도 빠르게 반등했다. 흥 시장의 고향 창원에 위치한 경남스틸은 상한가로 직행하며 전일 대비 29.97% 상승했다. 같은 테마인 한국선재, 삼일, 태양금속 등은 20%대 급등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인 안랩 (+19.28%), 씨니전자 (+13.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

스 (+18.84%), 태양금속 (+29.88%) 등도 상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선 테마주에 편승했다.

정책 테마주들도 꿈틀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원티드랩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8% 상승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원티드랩은 대선 국면에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직무 기반 역량 평가와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픈 놀은 23.60% 급등했다. 전문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가엠디도 11.29% 상승하며 대선 정책 테마주의 흐름을 탔다.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대선 공약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도 관련주를 끌어올렸다. 저출산 정책주로 묶이는 에르코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9% 올랐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식품과 대체식품을 제조하며, 출산율 저하 문제와 맞물려 정

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인 꿈비(유아용품 제조)는 29.96%, 야가방컴퍼니(유아의류·용품 제조)는 17.95%, 제로투세븐(유아의류·용품 제조)은 13.48%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정치 테마주란, 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이다. 기업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미국에도 정치 테마주와 유사한 ‘정책 주도주’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유력 정치인의 정책 이슈로 움직인다. 반면, 한국 정치 테마주는 정책보다는 사사로운 인연으로 오르내린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테마주 83개를 분석한 결과, 후보와 경영진 사이 공통 지인이 44%, 경영진과의 사적 인연이 18%, 학연이 16%였다. 이렇게 실체가 없고 뉴스와 소문만으로 오르내리다보니 변동성이 심하다.

정치 테마주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가치 없이 소문에 오른 주가는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며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주식시장 관세 쇼크

“소비재·유통 등 내수업종 중심 투자전략 세워야”

전문가들 보수적 투자전략 조언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 매력적”

내수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2기 행정부발 ‘관세 전쟁’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 급락과 관세 리스크 등에 대응할 투자처로 내수업종을 꼽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관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기 이전까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런 환경에서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쉽

지 않다”며 “방어력이 높은 엔터, 금융지주, 게임주 등 내수주를 중심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주 중에서도 통신주는 방어력이 중요해진 현재 시장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특성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종을 대표하는 ‘KRX 방송통신’ 지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 0.30% 하락에 그치며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

후 3~4년간 큰 기술 변화가 없는 통신산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로, 영업 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변화 이후 재정 확대 가능성도 내수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35조원까지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

비 재정적자는 0.5%에 불과했으며, 이는 미국(7.6%), 일본(6.1%), EU(3.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재, 유통, 건설 등 내수 중심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도 제시된다. 김대준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과도한 조치를 취한 만큼, 이를 완화하려는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다”며 “실적이 견조한 반도체, 방산, 기계, 조선 업종은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왼쪽부터)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위촉식에 참석한 윤태화 가천대 교수,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 최아름 성균관대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일PwC

삼일PwC-한국회계학회 윤태화·최아름 교수 ‘삼일저명교수’ 위촉

삼일PwC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윤태화 가천대 교수(봉사 부문)와 최아름 성균관대 교수(연구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7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제도는 삼일PwC가 2003년부터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 회계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 저술, 봉사 3개 부문에서 업적 및 활동이 뛰어난 현직 교수를 선정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윤태화 교수는 오랫동안 회계 분야에서 봉사하며 회계 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연구 부문에 선정된 최아름 교수는 회계학 분야에서 국제 우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실적을 쌓아왔고,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학문적 영향력을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는 “두 분의 뛰어난 전문성과 열정이 한국 회계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삼일PwC도 회계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반도체株 급락… 증권가 “업황 회복 기대감은 유효”

美 증시 폭락, 개별관세 도입 등 영향

삼성전자가 ‘4만전자’(주가 4만원 대)로 추락할 위기다. SK하이닉스는 ‘16만닉스’(주가 16만원)로 주저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영향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17% 하락한 5만 32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9.55% 내린 16만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같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도입을 예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

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계획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동차 시동 버튼과 전자레인지 작동 버튼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대미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한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향후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8.3%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미들의 고민도 커졌다.

증권가는 사라고 외친다.

최근 한달간 삼성전자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 중 6곳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KB

증권은 기존 7만원에서 8만2000원으로, 키움증권은 기존 7만3000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7만5000원→7만9000원), 한국투자증권(7만1000원→7만8000원), 신한투자증권(7만3000원→7만7000원), DS투자증권(7만1000원→7만6000원) 등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올렸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실적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연말까지 우상향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H

BM 수요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반기 차세대 HBM 조기 양산 기대감도 유효하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톱피)를 유지했다.

/원관희 기자

1시간 이내 전기차 배터리 진단 ‘평가속도·정확성’ 모두 잡았다

환경공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EU명식 벗어난 신속진단 기술 개발
BMS 활용한 S/W 진단법 적용
오차율 2%, 속도 등 모두 확보
민간보급 통해 순환경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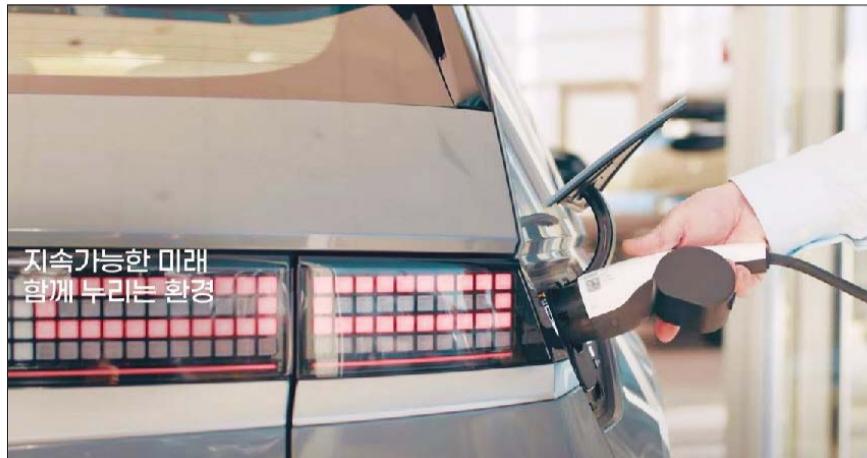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또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문에서 국가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구촌 화두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신속·정확한 성능평가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수명(SOH)을 신속히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테스팅 기법의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SOH란 사용 가능한 잔존 용량과 예상 수명 등 재사용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정량화된 성능 수준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측정해 결정된 수명을 말한다. S/W검사기법은 사용 후 배터리 내 이력 또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평가 기법이다.

이후 2023년에 기술 검증 및 실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신속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기준 국내외 전기차 업계에선 독보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1시간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보유하게 됐다.

공단이 개발에 성공한 1시간 이내의 신속평가 기술은 사용 후 배터리의 BMS(전압·전류 등 배터리 팩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띄운 홍보 영상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공단 유튜브 계정 갈무리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완전충방전 대비 오차율이 약 2%에 불과한 데다 평가 소요 시간을 8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단은 그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1대당 8시간이 소요되는 완전충방전 평가방식의 개선을 연구해 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허용 오차 3%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상태별 기술 실증에서도 허용오차 이내 기준을 충족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전기차 교체주기(약 10년)를 볼 때 올해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대량발생이 예상된다”며 “민간시장에도 공단이 기술 개발한 신속 성능평가 방법을 보급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신성장산업 창출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 보관, 민간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전국 4개 권역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사용 후 배

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성능평가 이외 100볼트(V) 이하 저용량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를 위한 장비를 도입했다. 그 외 수입차량의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9만4000톤(t)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디지털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했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회수·재활용 체계를 확대해 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아파트 관리 운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해 별도 가입 없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폐기물로 처리되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상으로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기업들과의 자원 순환 협약을 전년대비 110% 가량 확대해 총 391개 기업이 친환경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중화권 소비재 전시회로 수출 늘린다

코트라 홍콩 등 7개 전시회 참가
품목별 맞춤 지원·현장 마케팅 전개
한국관 운영, 中 수출 반등 발판 마련

정부가 상반기 중화권 매머드급 소비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집중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상반기 7개 중화권 대형 소비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연속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에 따라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주력 수출 품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 중화권 한국관 참가 전시회는 ▲홍콩 준계 소비재전자전(4.11~4.14) ▲하이커우 국제 소비재전(4.13~4.18) ▲광저우 춘계 수출입교역전(4.18)

하 캔토페어) 1~2기(4.13~4.18, 4.24~4.27) ▲홍콩 선물용품전(4.27~4.30) ▲상하이 미용전(5.12~5.14) ▲선전 국제 섬유전(6.5~6.7)까지 총 7건이다.

이들 전시회는 프리미엄 소비재에 특화된 하이커우 소비재전, 세계 최대 소비재전인 광저우 캔토페어, 아시아 최대 뷰티비즈니스인 상하이 미용전 등 뷰티, 일반소비재, 선물용품 등 품목별 전시회로,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광저우가 속한 중국 남부 지역은 글로벌 무역·물류 중심지로 아세안 및 중화권 시장과의 교역에 있어 중요 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코트라는 전시회별 품목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콩 소비재 전자전(4.11~4.14)은 상반기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IT 전자전시회로, 글로벌 기업 구매본부가 밀집한

홍콩에서 열려 다양한 소싱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4월은 주요 바이어의 소싱 시작 시점으로, 신제품과 파트너를 찾는 바이어가 집중 방문한다.

뒤이어 이어지는 하이커우 국제 소비재전(4.13~4.18)은 중국 4대 국가 전시회 중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다수 참가한다. 특히 중국의 ‘이도면세제도(Offshore Island Duty-Free, 중국 하이난성 방문자에게 연간 1인당 10만위안의 면세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한 면세점 MD와 프리미엄 소비재 소싱을 희망하는 바이어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구매 연계 가능성이 높다.

광저우 캔토페어(1기 4.13~4.18, 2기 4.24~4.27)는 1957년 시작된 중국 최대 규모 전시회로, 전 세계 200여개 국 바이어가 방문한다. 한국관 참가 우리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트렌드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hys@

필리핀과 교역·투자, 공급망 협력 가속

안덕근 산업장관

필리핀 투자경제특별보좌관 면담



밝혔다.

양국은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 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면담 이후 안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주한필리핀대사관이 주관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양국 관계가 지난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25% 상호관세 등 대미 협의 총력”

산업부 정인교 본부장

美 USTR 대표 등 면담 예정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사진)이 8일~9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 등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과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맨’ 본격 운영

신규위원 위촉식, 정기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 추진 및 감사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제9기 ‘KRC(한국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맨’ 신규위원 위촉식과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다. 또 ▲ 2024년 자체 감사 결과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 2025년 청렴옴부즈맨 운영계획 보고 ▲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KRC 청렴옴부즈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사 업무 전

반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제도, 관행, 업무 절차 등을 조사·개선하고, 감사 활동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여섯 차례 정기 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업추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과 권고가 이뤄졌다.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청렴옴부즈맨 제도는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내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라며 “옴부즈맨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일정 2025년 4월 15일(화요일) 오후 2시 ~ 6시

정원 선착순 20명

수강료 전액 무료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목표

-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주관 **햇터그룹**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햇터그룹지주회사



3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



대한홍삼

국내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한삼장홍삼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햇터라이프

업계최초 계층형 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7번 출구에서 600m/9번출구 공사중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담당자 성기홍 본부장 (1522-7585 / 010-3088-0047)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서 평화·친환경·ODA 실현한다

경기장서 플라스틱·종이 사용 제한
저개발국가 선수에 참가비 등 지원
도로, 시설물, 경기 운영과정 점검

세계 양궁인들의 축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1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최 도시 광주시가 이번 대회를 친환경·양궁 저변 확대 국가 양궁기술 지원(ODA) 등을 추진한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구호인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 친환경, 저개발 국가 양궁기술 지원(ODA)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30년생 소나무 966그루 식재 효과가 있는 ‘노플라스틱(No Plastic), 예스(Yes!) 966’을 목표로 친환경 대회로 펼쳐진다.

경기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종이 인쇄물 사용이 제한되며 개인 텁블러를 지침한 참가선수단에게 경기장과 연습장 내에 비치된 정수기



2025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포스터. /광주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

의 생수를 제공한다.

대회 기간 종이홍보물은 정보무늬(QR) 코드를 연계한 온라인 홍보물로 대체한다.

또 광주시는 저개발 국가 양궁선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나눔과 돌봄의 광주정신을 전파한다. 저개발국가 양궁선수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대회 참가비, 교통비, 숙박비,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본선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38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세계양궁연맹(WA) 규정에 맞는 양궁장 경기시설을 확보하고 장비보

광주시는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해 대회 경기장과 숙박시설 간 도로 포장과 차선,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와 이정표를 점검해 광주를 찾는 참가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할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관리팀과 현장점검팀 등 2개 팀으로 편성되며, 관내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전방위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목표로 한다.

경주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팀별 임무와 역할, 중점 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 현장점검반을 구

관실 등 다목적 공간도 구축한다.

또 훈련장을 사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장한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앞서 오는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프레데리인 ‘대통령기 전국 남·여양궁대회’를 개최해 경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세계양궁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인다.

지난 1일 기준 현재 예비 엔트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28개국 347명의 선수 및 임원(팀매니저·코치·의료 인력 등)이 등록했으며,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는 13개국 156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등록했다.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에는 체험부스를 마련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양궁 체험 및 사인회 등이 열린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기장군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제공

기장군은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임산부 455명을 선정해, 자부담 9만 6000원을 포함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고, 주문 금액의 20%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집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청도군

레일바이크 중심 관광객 유치

청도군이 대표 관광지인 청도레일바이크를 중심으로 봄맞이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섰다. 청도읍 신도리 일원에 위치한 청도레일바이크는 왕복 5km 구간의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은하수다리, 테마 산책로, 시조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도 9경 중 제9경으로 손꼽힌다.

레일바이크 주변에는 자전거공원과 캠핑장이 함께 조성돼 자연 생태와 레저가 결합된 체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명소로서의 인기를 입증했다.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423명 입국

영양군에서는 4일부터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34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고 밝혔다.

지난 3.25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78명의 근로자 입국에 이어, 이번에는 MOU 체결 방식으로 345명의 근로자가 입국한다. 이들은 E-8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11월초까지 계약이 체결된 농가에 머물면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고추, 상추, 과수 등 다양한 농가에 고용되어 농작업을 수행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고, 한편으로 영양군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우게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기업 해외진출·무역인재 양성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무역실무·마케팅 연수 운영

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무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수출마케팅 종합 연수 과정’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각각 추진해 오던 무역실무 교육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합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수출 교육을 신규로 편성해 폭넓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이번 연수 과정은 ▲무역실무 전문가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소상공인 수출 교육, 총 세 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무역실무 전문가’ 과정에서는 무역 이론부터 무역 영어, 모의 무역 거래 등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글로벌 온

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은 글로벌 유망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반에 대해 진행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 신설한 ‘소상공인 수출 교육’ 과정은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라이온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 창업자 5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픈 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와 진출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법을 전수한다.

또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소자본이라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췄다면 수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시가운영하는 부산수출원스톱센터는 지역 수출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수출 지원 시책 종합 안내 ▲수요 맞춤형 교육 ▲수출 애로 상담 ▲대학생 통상 지원단 운영 등 수출에 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구성

경주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할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관리팀과 현장점검팀 등 2개 팀으로 편성되며, 관내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전방위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목표로 한다.

경주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팀별 임무와 역할, 중점 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 현장점검반을 구



경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청사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경주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분야별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점검 준비에 나섰다.

성하고, 24시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교통시설, 복지시설, 공사장 등 9개 분야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전남도,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고흥군, 신안군 나란히 선정

전남 고흥과 신안에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고흥군과 신안군이 나란히 선정돼 사업비 35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양식장과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친 후 창업을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고흥만 간척지와 신안スマ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 양식의 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성이 좋아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새우

를 주력 양식품으로 정하는 등 공모 취지와 평가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신청한 2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흥군은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수축산밸리와 연계해 200억원 규모의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신안군은 15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등 기존 양식 기반 시설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임대형 양식단지를 2027년까지 신속히 건립해 청년에게 보급하고, 청년·귀어인을 위한 임대형 해상 양식장을 계속 확보하며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베처수산업도 함께 육성할 방침이다.

/고흥·신안(전남)=양수녕 기자

칠곡군, ‘가실성당 웨딩 챌린지’ 열어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

칠곡군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웨딩 장면 촬영지로 주목받은 가실성당을 배경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가실성당 웨딩 챌린지’를 연다.

이번 챌린지는 드라마 종반부의 한 장면에서 착안했다. 주인공 아이유가 아버지와 함께 붉은 벽돌 성당 앞을 걷고, 푸른 하늘 아래로 풍선과 색종이가 흘날리는 장면은 칠곡군 왜관읍 가실성당에서 촬영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방송 이후 ‘아이유가 결혼한 성당’

에 대한 관심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실제 현장을 찾는 방문객과 웨딩 촬영 문의도 급증했다.

칠곡군은 이 같은 관심을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를 기획했다. 참여 방법은 가실성당을 배경으로 드라마 속 아이유처럼 환하게 웃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최고의웨딩 촬영장소_가실성당', '#폭싹속았수다_가실성당', '#칠곡군', '#가실성당' 등의 해시태그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고, 제공된 네이버 품을 통해 참여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무안군의회(이호성 의장)는 7일 의장실에서 무안군수어통역센터(센터장 정영식)와 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본회의 진행 시 수어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도 군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소외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무안군수어통역센터는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회의 내용을 통역하고, 군의회는 안정적인 수어통역 환경 조성과 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정치 불확실성 일단락… 유통업계, 소비회복 ‘기대반 우려반’

봄 시즌 할인 등 손님맞이 분주 경기 불황 여전… 부정적 시각도 “차기 정부 정책기조, 중요 이슈”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유통가에 소비심리 진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경기 불황 장기화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실시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유통가 전반에 소비심리가 반등할 것이라는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실제 정치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웃돌았으나,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12월 88.2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100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인



백화점들이 봄 정기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외국인들과 소비자들이 백화점 로비로 입장하고 있다

아직 이르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 트럼프 관세,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박 등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다행으로 펴져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프라인의 경우는 온라인 커머스 경쟁에 밀려 정치적 혼란 정국 이전부터 어려운 흐름을 이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오프라인 연간 매출 통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8.9%에서 2023년 3.7%, 2024년 2.0%로 꾸준히 하락세다. 반면, 상대적으로 온라인은 2022년 8.8%에서 이듬해 5.2%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4년 15.0%로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심리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미국 트럼프 관세 문제, 이상 기후로 인한 식료품 공급 불안 등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가격 변동 요인에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국이 일단락된 이후 차기 정부가 어떤 기조를 펼칠지 역시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정치 혼돈 상황에 외국인들까지 국내 여행 및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서 유통 시장 불안은 더 가중됐다. 당시 비상계엄으로 여행 및 숙박 취소를 문의하는 여행객이 몰려,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당시 서울의 한 호텔의 경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여 건의 예약이 취소된 바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큰 타격을 입었

던 만큼,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식당업을 운영하는 김 모 씨(52)는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타격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가슴졸일 상황이 해소되기도 했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외식을 하는 손님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유통업계가 봄맞이

할인 행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소비심리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그룹사 최대 규모 행사인 ‘랜더스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롯데마트 제타’를 정식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팬큐절’ 온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반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기엔

식음료업계, ‘도파민 자극’ 이색 제품 봇물

제너시스BBQ 맵파민 페스티벌 CJ제일제당 ‘CJ실비김치’ 선봬 할리스 ‘몬스터 아메리카노’ 인기

식음료업계가 ‘도파민 자극’ 트렌드에 빠져들고 있다.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해 색다른 맛과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과 이벤트가 잇따라 등장 중이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 음료부터 매운맛으로 ‘맵부심’을 자극하는 식품, 침샘을 자극하는 강렬한 신맛까지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지난 3월 바쁜 일상 속 한 잔으로 도파민과 에너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메리카노 ‘몬스터 아메리카노’를 선보였다. 저당, 저칼로리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몬스터 아메리카노’는 출시 1주일만에 1만 잔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깊은 풍미의 할리스 시그니처 에스프레소와 탄산감 가득한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의 이색 만남으로 관심을 모은 ‘몬스터 아메리카노’는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직장인과 수험생 등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맵파민 페스



맵파민 페스티벌



몬스터 아메리카노

티벌’을 진행한다. ‘맵파민’은 ‘매운맛’과 ‘도파민’의 합성어로 매운 음식을 통해 행복에 관여하는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뜻이다. 매운맛 치킨을 주문하면 맵기 단계별로 치즈볼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1단계인 ‘맵소디’는 2알, 2단계 ‘맵쇼크’는 3알, 가장 마지막 단계인 ‘매운 양념치킨’은 5알의 랜덤 치즈볼이 제공된다.

식품회사 중에서는 CJ제일제당이 화끈한 매운맛을 자랑하는 ‘CJ실비김치’를 선보였다. 매운맛을 측정하는 척도인 ‘스코빌 지수’가 일반 배추 김치의 30배에 달하며, 매운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의 최적 배합을 통해 강렬한 매운 맛을 구현했다.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된 이번 신제품은 자극적인 맛을 찾는 MZ 세대를 겨냥해 1~2인 가구에서 먹기 좋은 800g 중량에 용기와 파우치 이중포장 형태로 만들어 간편함을 더했다.

오리온은 극강의 신맛을 느낄 수 있는 ‘핵 아이셔’ 3종을 출시했다. 기존 아이셔 대비 60% 강력해진 신맛을 자랑한다. 취향에 따라 신맛을 즐길 수 있도록 청사과맛의 캔디볼, 깔라만시와 레몬맛 필링의 스틱형 소프트캔디와 젤리 등 다양한 타입으로 선보였다. 짜릿한

신맛으로 MZ 세대의 도전 욕구를 자극해 이색적인 경험을 찾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식품업계가 도파민 자극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강한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현대 소비자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피로도가 높은 일상 속에서 빠르고 강렬한 즐거움을 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매운맛, 신맛, 고카페인 등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유도해 일시적인 쾌감과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곧 ‘맛의 짜릿함’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로 이어진다.

또한, SNS와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도 크다. 자극적인 맛은 ‘젤린지’나 ‘반응 콘텐츠’에 적합해 콘텐츠화가 용이하고 자연스럽게 입소문과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한 취식 행태가 아니라 경험과 재미를 소비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판매 촉진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Z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내달 ‘그랜드십일절’ 개최

셀러 모집… 이달 23일까지 접수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내달 연중 최대 규모 쇼핑 축제 ‘그랜드십일절’을 열고, 행사 참여 판매자(셀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그랜드십일절은 11번가가 매년 11월에 진행해 온 대규모 할인 행사다. 올해는 상반기에도 행사를 마련해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이달 23일

까지 사이트 내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1번가 박현수 최고사업책임(CBO)은 “연중 상·하반기에 걸친 두 차례의 대형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충성 고객층을 강화, 치열해진 이커머스 경쟁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그랜드십일절이 참여 셀러들에게도 큰 폭의 성장을 일궈내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판매 지원책을 아낌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SSG닷컴, ‘헬시 99 스토어’ 기획전

브랜드 건강식품 100여 종 할인

SSG닷컴이 이달 13일까지 건강식품 군일가전 ‘헬시 99 스토어(Healthy 99 Store)’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행사 기간 종근당건강, 셀트리온이너랩, 리얼닥터 등 브랜드 건강식품 100여 종을 할인된 군일가에 선보인다. ‘레모나 구미’, ‘뉴

케어 균형영양식’, ‘피키티카 푸드쉐이크’ 등 일부 제품은 1+1 구성을 제공한다.

쓱배송(새벽배송·주간배송)과 스타배송(도착보장)으로 건강식품을 일정금액 이상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뉴케어 스포식스 리바이탈 드링크’ 1팩을 선착순 증정한다.

/안재선 기자



CJ실비김치

/CJ제일제당

오랜 시간 과일 향의 상큼달콤함이 주는 즐거움을 전파해온 환타답게 멜론의 부드러운 향긋함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환타 멜론’은 350ml 캔과 600ml 페트 2종으로 출시되며 ‘코-크플레이’ 등 온라인 채널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코카-콜라

‘환타 멜론’ 신제품 출시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환타가 달콤한 멜론향에 톡톡 뿌는 탄산감이 어우러진 ‘환타 멜론(사진)’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환타 멜론’은 부드럽게 퍼지는 멜론의 달콤함과 기분 좋게 짜릿한 탄산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K-바이오, 뇌질환·항암 기술로 글로벌 빅파마 ‘정조준’

에이비엘바이오 GSK와 4조 계약
유한양행·한독 이중항체 등 협력
알테오젠 제형전환 2조 수출 성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잇따라 수출해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을 강화하며 ‘K바이오’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5일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뇌혈관장벽 투과 기술 ‘그랩바디-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조1104억원 수준으로, 우선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 약 739억원, 단기 마일스톤 약 741억원 등 총 1480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기타 마일스톤은 임상, 허가, 상업화 등의 성공에 따라 단계별 수령하며 그 규모는 최대 3조9623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GSK는 에이비엘바이오의 그랩바디-비를 도입해 복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GSK는 소형 간섭 RNA(si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ASO), 폴리뉴클레오티드, 항체 등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랩바디-비는 약물의 혈액뇌관문(BBB)을 투과율을 높여 해당 물질의



자료/에이비엘바이오

치료 효능을 증가시킨다. 즉, 그랩바디-비 기반 약물은 뇌 내피세포 표면에 발현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IGF1R)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기전을 갖춰 혈액뇌관문(BBB)을 통과한다.

이 경우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해 중추신경계(CNS) 질환의 발병 원인을 정조준하는 치료가 가능해진다. 혈액뇌관문(BBB)은 유해한 물질과 인자가 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이지만,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작용 기전에서는 핵심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그랩바디-비’를 상업화해 글로벌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자체 연구개발로 이중 항체 플랫폼을 확보해 단일 항암제,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대표 제약 회사

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유한양행과는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로 ABL104, ABL105 등 2종을 공동연구하고 있다. ABL105는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HER2 발현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다. ABL104의 경우,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한양행이 임상 1/2상 시험계획(IN D)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승인받은 연구는 해당 약물을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임상시험이다.

한독과는 최근 담도암 2차 치료제 ‘ABL001(토베시미그)’ 연구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토베시미그는 표적항암제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및 전이성 형태로 예후가 좋지 않은 담도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는다. 토베시미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 개발사의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에이비엘바이오의 계약은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은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달에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자회사 메드이뮨 LLC 및 영국 자회사 메드이뮨 Ltd와 피하주사제형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약 1조9640억원(13억5000만 달러) 규모다.

알테오젠은 디푸목 항암 치료제의 피하주사제형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글로벌 개발 권리를 아스트라제네카에 부여했고, 계약금을 포함해 ALT-B4 개발 및 규제, 판매 관련 마일스톤 등을 확보하게 됐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을 구현한 물질이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신약개발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넘어서 첨단 기술력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오래된 난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최근 연구를 상업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에스쁘아

“모공 잡고 톤업까지”

‘비벨벳 파운데이션’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브랜드 에스쁘아가 CJ올리브영에서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신제품 ‘비벨벳 파운데이션’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제형으로 설계됐다. 제형뿐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모공의 밝기, 붉은기, 노란기를 보정하는 기술력을 적용해 차별화했다. 모공을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피부 전체 색상이 균일하게 밝아지는 효과를 갖췄다.

이번 신제품은 총 10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카이스트와 협업해 개발한 색조 시스템 ‘AP 컬러 그리드’를 활용해 어떤 피부 톤이든 맞는 색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3N 두부’ 색상은 고명도의 색감을 구현해 얼굴 입체감 표현에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파우더 성분 비율을 높여 메이크업 고정력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외부 자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메이크업을 72시간 지속해 준다. 또 식물성 PDRN, 웨타이드, 저분자 히알루론산 등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뭉침이나 들뜸을 최소화한다.

/이청하 기자



에스쁘아 ‘비벨벳 파운데이션’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스테키마’, 美 보험시장 진입 가속

美 3대 PBM과 선호약 계약
공·사보험 처방집 등재 성과
직판 앞세워 처방 확대 기대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한 곳의 처방집에 등재 결정이 이뤄져 환급 가능한 시장을 조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출시 약 한 달 만에 거둔 성과다. 회사측은 미국 직접판매(직판)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스테키마는 해당 PBM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으며, 특히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해당 PBM에서 관할하는 공사보험은 전체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22%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을 판매하며 쌓은 협상 역량을 바탕으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면서 등재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미국 제약 시장에서 3대 PBM은 전체 보험 시장의 약 80% 규모를 차지한다. 통상, 대형 PBM과 제약사가 협상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처방집에 의약품이 등재될 수 없다. 이 경우 환자는 고가의 치료제를 비용 환급 없이 제품 가격 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 출시 한 달 만에

대형 PBM과의 등재 성과를 달성하며 영업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스테키마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직판하고 있으며, 같은 자가면역질환 제품인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라를 판매하며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 계약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기존 제품을 판매하며 미국 내 주요 자가면역질환 의료진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온 만큼 처방집 등재가 완료된 스테키마 처방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SK바이오파, 세노바메이트 연구 활발

美신경과학회 학술대회서 성과 발표

SK바이오파는 오는 9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제 77회 미국신경과학회(AAN) 연례학술대회’에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감소 및 뇌전증 관리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임상 결과와 실 사용데이터를 포함한다. 회사는 반응 성 신경 데이터를 객관적 지표로

활용해 세노바메이트 및 기타 부가 항경련제의 효과를 평가했다.

해당 임상은 국소 발작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다기관 후향적 관찰 연구다.

그 결과, 뇌전증파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1차 평가 지표를 종족 했다. 최종 관찰 시점(12주)에서 뇌전증파 발생 빈도는 평균 2.5회/29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스라인(8주) 평균 15.7회/28일 대비 평균 약 84% 감소한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짜 먹는 진통제 ‘파인큐나프록센’ 공개

대원제약 편두통·치통에 효과

대원제약은 국내 유일의 짜 먹는 나프록센 진통제 ‘파인큐나프록센현탁액’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파인큐나프록센현탁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나프록센 250mg이 처방됐다. 나프록센은 편두통, 치통, 근육통 등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다. 해당 성분은 비스테로이드 성 소염 진통제 중 진통 및 항염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장점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나프록센 성분의 의약품은 정제

나 연질 캡슐 형태로 유통됐는데, 대원제약은 이번 막대형 제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폭과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막대형 의약품은 물 없이 복용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한 것이 강점이다.

또 파인큐나프록센현탁액은 ‘파인큐’ 제품군의 세 번째 짜 먹는 진통제다. 대원제약은 앞서 해열진통제 파인큐아세트펜(아세트아미노펜 640mg), 해열·소염 진통제 파인큐이부펜(이부프로펜 400mg) 등 진통제 제품군을 구축해 왔다.

/이청하 기자

제너시스BBQ

벚꽃 필 때도 ‘치킨’

빌리지 송리단길점 핫플 등극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BBQ 빌리지 송리단길 점이 본격적인 벚꽃 시즌을 맞아 기존의 치킨 매장과 차별화된 메뉴 및 특색 있는 운영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송파구에 위치한 송리단길에 문을 연 BBQ 빌리지 송리단길 점은 치킨 외에도 브런치, 베이커리, 커피, 화덕피자 등 다양한 메뉴를 도입한 크로스오버 매장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오픈 후에도 브로드웨이를 연상시키는 간판 디자인과 대리석을 활용한 고급스럽고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한 인테리어로 젊은 세대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송리단길점은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로 유명한 석촌 호수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벚꽃 시즌이 되면 매장 대기 번호가 100번이 넘어갈 정도로 상춘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0th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거
소렸다



현대위아, 지속가능성 평가서 2년 연속 '골드등급'

현대위아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위아는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2024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0개국, 13만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공급망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 현대위아가 획득한 골드 등급은 상위 5% 이내 기업에만 부여된다.

/현대위아



티웨이항공, 여객운송 환승 증가 부문 '최고실적'

티웨이항공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인센티브 운행결과 및 제도 설명회에서 2024년 성장도 부문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2024년 여객운송 환승 증가 부문에서 최고 실적을 거두고, 환승객 증가 기여와 성장도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사업본부장(왼쪽)과 조병태 티웨이항공 인천지점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4·3 할인' 도입 후 8.3만명에 혜택

제주항공은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할인 제도를 통해 지역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4·3 할인은 제주 4·3 생존희생자에게는 국내선 운임의 50%, 유족에게는 40%를 연중 할인해 주는 제도로 제주항공이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는 8만3247명에 달한다.

/제주항공



우리금융-서울대, 금융·기술 융합 미래혁신 선도

우리금융그룹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디지털·IT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기술 융합 공동 연구 추진 등에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옥일진 우리금융그룹 부시장(왼쪽)과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휴롬 'P41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휴롬의 신제품 착즙기 'P410'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25'에서 수상하며 제품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7일 휴롬에 따르면 P410 착즙기는 혁신성, 기능성, 감성품질, 친환경성, 내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휴롬

SK일렉링크, 서울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구축

5년 연속 사업자 유지 '성과'
구축 시 일정비율 보조금 받아
서울시 관내 충전편의 제공

SK일렉링크가 5년 연속 서울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맡게됐다.

SK일렉링크는 2025년 서울특별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보급 및 설치·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것으로 기업 신용도와 충전 서비스 운영 실적, 보유 충전기 사양, 고객 지원 및 운영 관리 현황 등 평가항목에 따라 SK일렉링크 등 6개사가 선정됐다. SK일렉링크는 선정 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 자리를 유지하는 성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 충전기.

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에 성공하는 등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전기차 운행 편의를 제고하는 서비스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전기차 충전업계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역량을 연속으로 인정받은 만큼 업계 최고의 역량을 담아 전기차 고객의 원활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겠다"며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진출을 발표해 ESG 가치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크레딧 운용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고객 만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과를 거뒀다.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제안하는 충전기 설치 입지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SK일렉링크는 충전기 구축 이후 운영까지 맡아 전기차 고객의 서울시 관내 주행에 충전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SK일렉링크는 이번 서울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담당하게 되며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우수한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

현대차·기아, '로봇 친화 병원' 구축

한림대의료원과 사업 공동추진

현대자동차·기아의 로보틱스 솔루션이 병원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

현대차·기아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로봇 친화 병원' 구성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MOU는 현대차·기아가 보유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의료 공간에 도입하고, 병원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서비스를 공동 개발 및 실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차·기아는 2024년부터 팩토리 얼 성수 등 민간 오피스를 대상으로 실내 배송, 무인 택배, 전기차 충전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친화 빌딩'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성과 정밀성이 더욱 요구되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왼쪽), 한림대학교의료원 김용선 원장이 7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로봇 친화 병원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료 공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로봇 친화 병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의료 공간 맞춤형 로봇 서비스 및 로봇 설루션 구축을 담당하고 관련 자문, 설계 지원,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해 의료 분야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양성운 기자 ysw@

안전문화 정착·고용노동 정책 홍보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롯데GRS 송파 삼전사옥에서 진행한 협약식에는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와 정윤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이 참석해 임직원들의 안전문화 정착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홍보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GRS는 ▲안전교육 활성화 및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을



지난 4일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오른쪽)와 정윤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임직원 대상 2025 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방심 ZERO 당신은, 우리의 HERO'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롯데GRS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방면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JW중외박애상 수상자에 '백순구' 선정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



뢰를 형성하기 위해 병원 내 1호 접종자로 나서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비라기센터를 유치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 폭력 예방 교육,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공 의료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에는 희귀질환 강원권 거점센터(현 강원권역 희귀질환 전문 기관)를 유치해 소외계층과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BAT로스만스,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취업 사진관' 캠페인 추진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는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Cheer-up) 사진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취업'과 '응원(Cheer-up)'의 의미를 결합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취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생계와 진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세부터 34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학인서, 퇴소학인서, 입소사실학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한양증권 ◇ 총괄 선임 △ S&T총괄 배성수(상무) ◇ 본부장 선임 △ 경영지원본부장 박상훈(상무) △ CM본부장 박성주(상무) △ CS본부장 유문성(상무) ◇ 부서장 선임 △ BRS부부장 이승곤(이사) ◇ 채권부부장 정지현(이사) ◇ 기업금융부부장 정경훈(부장) △ S&T전략 추진부장 김연우(부장)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정치 성향, 타고나는가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진

최근 진화유전학과 성격심리학은 정치 성향이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기질과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의 일부는 이미 우리 뇌와 성격 속에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약 30만 년 전부터 현대 인류의 형태로 진화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태도 역시 이 오랜 진화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의 차이는 유전적인 기질로 남았고, 오늘날에는 정치 성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낯선 것, 변화, 외부 집단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는 편도체(amygdala)와 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고,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부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반면, 전두엽은 문제 해결, 계획,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

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에서 더 활발히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차이는 '누가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피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은 위기 상황에서 집단을 보호하는데 유리하고, 반대로 새로운 자원과 기회를 탐색하는 개방성은 평화로운 시대에 유리하다. 말하자면, 진보도 보수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양 날개였던 셈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모델로 '빅5 성격 이론'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 창의성, 상상력), 성실성(Conscientiousness, 책임감, 계획성, 규칙 준수), 외향성(Extraversion, 사교성, 활력,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우호성(Agreeableness, 협조적이고 친절한 성향), 신경성(Neuroticism, 불안, 감정 기복 등 정서적 민감성).

이 중에서 특히 정치 성향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요소는 개방성과 성실성이 다.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사회, 환경 보호, 성소수자 인권처럼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 규칙, 전통, 가족구조처럼 이미 존재하는 질서와 규범을 중시한다. 이들에게 진보적인 변화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정치 성향이 100% 유전자나 성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들은 정치 성향의 약 30~50% 정도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지니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에 더 적합한 뇌와 성격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남은 부분은 환경과 경험이 채운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 논쟁이 격화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나 보다 강하고 나보다 강하구나"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정치는 단순히 법과 제도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내면의 표현일 수 있다. 진화유전학과 성격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은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의 표현일 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잃어버린 사슴을 찾아서: 지록위마의 종막



기자 수첩
서예진
(정치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4일, 윤석열 정부를 반주하며 떠올린 성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2022년 5월 이후 1060 일간 우리는 지록위마의 세상에 살았기에. 지록위마의 세상에서 기자는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 반성해본다.

사슴을 잃어버리자 세상은 극단적으로 치달았고, 반지성주의가 독약처럼 퍼져갔다. 그동안 '주장'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진영에 따라 '날리면'이라는 탈을 썼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헌법의 상위 개념인양 굴었다. 파시스트라

고 부르기에 아주 좋은 '덕목'을 갖춘 어떤 이들은 헌법재판소 근무자의 이름만 보고 중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떠들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던 세상은, 결국 44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정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경고성 계엄이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내린 바 없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사실 이런 변명을 안 믿어야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우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주장을 믿고, 적극적으로 퍼트렸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금과옥조처럼 믿었다. 이것 역시 사슴을 말이라 하는 행위 아닌가.

많은 매체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주장을 비슷한 분량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

에서 기자는 탄핵 반대파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해도 되는지를 내내 고민했다. 하지만 오랜 고민에 비해 실제 결과물은 미약했다.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매도하고, 야당이 하는 일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보도해도 됐을까. 진실과 허위를 나란히 놓는 건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외연했던 건 아닌가. 잘못된 주장을 전하면서 상대편 주장을 병렬해 정쟁처럼 취급한 건 아닐까. 결국 기자도 관성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지록위마의 세상에 일조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작지만 짐요한 통증이 내내 남는다.

이제 대통령은 파면됐고 봉황기는 내려졌다. 하지만 고민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말로 '변신'했던 사슴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syi@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8일 (음 3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다. 48년생 동료들의 협조로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 60년생 뒤늦은 풍화 기인에 빠져들어 날 새는 줄 모른다. 72년생 외국어를 공부하여 정보를 얻는 기쁨이. 84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37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다. 49년생 규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61년생 타인의 실수가 달갑지 않다. 73년생 부부가 화합하여 뜻을 이룬다. 85년생 병이 왔으나 약을 주니 설부터 실망은 미라.



38년생 주식 투자가 잘되어 이득 발생. 50년생 일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 오후에 꾼다. 62년생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74년생 사기꾼들은 멋있음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다. 86년생 여행계획이 생긴다.



3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란. 51년생 옳은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63년생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얻음. 75년생 집안 산소정리에 정성을 다하자. 87년생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돈이 들어오는 하루이다.



40년생 정확한 일 처리를 위해 깔끔한 문서로 작성. 52년생 애쓴다고 돌아선 상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64년생 주식투자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한다. 76년생 선물을 받기 보다 주려는 마음을. 88년생 맥이 빠지기 시작하면 보람이 있는데.



41년생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53년생 심신이 고달프나 재물을 얻는다. 65년생 오후 5시 지나서 운전 조심할 것. 77년생 하던 일에서 영업실적이 나타나 소득으로 돌아온다. 89년생 돈으로 베팔 능력이 있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42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손해 끼치지 말고 떠나라. 54년생 맑은 마음을 담는 것이니 곱게. 66년생 집 안 청소를 둘도록. 78년생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나무가 살아나겠는가. 9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인생 허망하다.



43년생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는 날. 55년생 동료와의 관계를 잘 맺도록. 67년생 어제의 친구에게 험담하지 않도록 자제. 79년생 집안싸움에 관여하여 옳고 그름을 물지 마라. 91년생 운기가 좋으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44년생 손해를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56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부터 사야 순서 아닌가. 68년생 남에게 말전주하여서 나도 손해다. 80년생 시력이 악화하니 동서구분이 어려울 듯. 92년생 인생에서 물리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



45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57년생 병도 내 마음에 있다. 69년생 어제 먹은 음식이 상한 것을 오늘 알게 되어 냉장고를 청소. 81년생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93년생 집중은 성공의 시작이며 비결이 될 것이다.



46년생 젖은 보라색이 행운을 줄 것 같다. 58년생 아름답고 맑은 시를 써보니 희망이 일어난다. 70년생 걱정이 해결되니 고생한 보람이 오후에 있다. 82년생 노당의(老當益壯)이라 했으니. 94년생 성과가 좋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47년생 개나리를 보고 봄을 느끼지 못하니 서글프다. 59년생 오늘은 현상 유지로도 다행. 71년생 저녁 회식에서 과식은 조심해야 할 터. 83년생 알지 못한 것을 어찌 깨달으라 하는가. 95년생 놀기보다는 일을 찾아서 에너지를 얻어보도록.

김상회의四季

자손 복덕



조상들은 태교를 중시 여겼고 태몽에 대해서도 남달리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 특히 자손의 번성과 창성을 위해 발달한 신앙이 북두신앙이다.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자손이 무탈하게 태어나 성장기를 보내고 종명함과 건강함과 무탈함이 함께 하여 자손까지 창성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함께 해결되는 것이 북두칠성연명경에 잘 함축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유신 이야기에는 그가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으므로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

이미 천오백 년 이전에도 칠성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요'란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의 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과 함께 해와 달을 합친 일곱별로서 칠요성이라고 했다. 사주명리학의 음양오행학이 자리를 잡기 이전부터 밝게 빛나는 천체들에 수성이니 목성이니 이름을 붙여 지구와의 상호 상응하는 에너지 체로서 인정해왔던 것이니 여기에 주목한 것이 점성학인 것이다. 이는 서양에서도 사주명리학에 대응하는 운명예측으로서 점성술이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대소 사찰에 가보면 산신각이나 칠성각 또는 목성각이 따로 있지만 삼성각(三聖閣)이 있고 삼성각 안에는 산신과 칠성과 목성이 함께 모셔져 있다. 그 가운데 위치에 모셔져 있는 것이 칠성이다. 그 만큼 칠성 신앙을 중시했다는 의미이다. 칠성경으로도 불리는 북두칠성연명경은 중국에서 지어져 도교적 신앙도 함께 녹여져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북두칠성연명경 서두에 나오는 태상노군(太上盧君)의 노군이 노사나불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니 칠성 신앙이 불교에 녹아든 모습으로 이해해도 가능하다. 무탈을 바라는 민간신앙의 칠성신앙은 훌륭한 자손의 점지와 성장에 효험이 있음을.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647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751 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현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4	1	9			
	1					9	3	2
	5							
5	6					9		
	2					6		
	1						8	4
2			6	8				9
						9	3	2
1							7	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Sudoku 3x3

Crossword

Memory

Sudoku 365

Crossword

Memory

일부 의대 유급예정 통지 시작 본과 3·4학년 수업출석 늘었다

유급기한 도래… 복귀율 높아져
본과생 의학수업 정상화될 조짐
내년 증원동결 조기확정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의대생 유급 기한이 도래하면서 의과대학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학생 수업 복귀율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 없이 기준 발표한 원칙에 따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학생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수업에 복귀했다. 지난주에 대학 본과 3, 4학년이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하자고 결정한 데 이어 1~2학년도 이날 복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날(7일)을 기준으로 서울대와 다수의 대학은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여부가 결정된다. 이 시점이 도래하면 서 학생들이 대거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날을 기점으로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스

출석 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예정 통지를 추후 내보낼 예정이었다.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주 의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3.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집계와 달리 본과생을 시작으로 의학 수업이 정상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기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당초 정부와 대학은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의 조건으로 정

하고 실질 수업 참여율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무리하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해석이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본과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래 학년은 물론, 다른 대학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 2학년도 수업을 각자 흩어져 서 듣다 보니 출석율을 체크하기 어렵지만,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오면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프리랜서 표준계약 온라인으로 작성하세요”

서울시,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200개 사업장에 1년간 무료 지원

직업소개소·요양병원·방문레슨 플랫폼·웹툰 제작사 등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서명자 본인인증, 대량 문서 관리 등 계약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갖춰진 ‘전자계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서울시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이 계약서 대신 모바일·PC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표준계약서로, 시는 최

대 2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해 프로그램을 1년간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인협회·직업소개소▲요양병원 ▲방문레슨 플랫폼 ▲MCN(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기획사) ▲운동 관련 사업장(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웹툰 제작사·플랫폼, 서울시 표준계약서 유관 업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간편 전송 기능(단건, 대량)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 프로그램 자동 연동 등 계약 업무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기본 40건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지점을 보유한 사업장은 지점 현황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520건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서울시 표준계약서’ 관련 사업장이라면 세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점에 따른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점도 모두 서울 시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등록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자격증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월 신청한 민간자격증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등록민간자격증이 등록완료(등록번호 2025-001902)됐다고 7일 밝혔다.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민간자격증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가 만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다.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민간자격증은 서울사이버대 재학생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전공과 무관하게 서울사이버대의 졸업생 또한 시간제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이수에 필요한 과목은 ▲남

북한 사회통합 ▲북한사회 바로알기 ▲북한정치와 경제 ▲분단국 통일사례 등 모두 6개 과목으로 설정돼 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얻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남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북한사회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단, ‘정착지원교육지도사’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은 아니다.

/이현진 기자



▲미국 재무장관 “美 관세 따른 경기침체 우려 필요없어”
▲日도요타 2027년까지 15종 전기차 투입…“관세 리스크에 생산거점 확대”

/사진 뉴시스

▲‘트럼프에 따지는 남극 펭귄’…무인도 관세에 조롱 뮤 학산
▲이시바 “상호 관세는 국난 사태…가능한 빨리 방미”

▲‘오사카 엑스포’ 일주일 앞두고 메탄가스 검출…안전 우려 확산
▲푸틴 특사 “미국·러시아, 이르면 이번 주 다시 회동”

서울시, 장애인가정 육아 돋는 ‘홈헬퍼’ 지원

올해 130가구 무료지원 목표
출산준비, 산후조리 보조 등

서울시가 올해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가정 돌보미 홈헬퍼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돋는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또한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으며, 시는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돋고, 학습·독서를 지도 및 놀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경과원, 베트남 전시회서 1150만달러 실적

남양주시 중소기업과 단체관 구성
총 109건 수출상담… 기술력 입증



‘2025 베트남 하노이 종합전시회’ 남양주시관 모습.

/경과원

115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와 5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남양주시관에는 ▲(주)현동인터내셔널(식품) ▲(주)위너스(콘센트 및 스위치) ▲(주)크리쉐프(주방기기) ▲(주)에어비젼(미세먼지 롤필터) ▲(주)대연(건조대) ▲(주)토페스(무인교통 감시장치) ▲(주)에스케이에프엠(폐기물 감량기) ▲리나스대성(주방기기)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뜰 / 06:08 | 해짐 / 19:01



메트로 한줄뉴스

▲미국 재무장관 “美 관세 따른 경기침체 우려 필요없어”
▲日도요타 2027년까지 15종 전기차 투입…“관세 리스크에 생산거점 확대”

/사진 뉴시스

▲‘트럼프에 따지는 남극 펭귄’…무인도 관세에 조롱 뮤 학산
▲이시바 “상호 관세는 국난 사태…가능한 빨리 방미”

▲‘오사카 엑스포’ 일주일 앞두고 메탄가스 검출…안전 우려 확산
▲푸틴 특사 “미국·러시아, 이르면 이번 주 다시 회동”



유통업계
소비회복
기대반 우려반
L1

K-바이오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강화
L2



농촌 일손 돋고, 쌀 소비촉진 앞장…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915년 화재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조합원 대상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사업영역과 입지를 넓혀왔다. 협동조합 정체성을 토대로 농업인과 고객의 금융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전문 손해보험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을 위한 보험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및 실의 증진에도 앞장 서고 있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품목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도 앞장서 왔다”며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적 지원 확대로 농업·농촌 실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3월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 서비스’를 개시했다.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 서비스는 농협이 추진 중인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이다. 쌀값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우리쌀 소비 촉진 및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약 200명이 구독 중이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아침밥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대신해 아침밥 구독서비스를 준비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농가 위기극복을 위해 코레일관광개발과 쌀 소비 촉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92개 유관기관과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 동참협약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2월엔 코레일관광개발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쌀 소비량 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임직원 대상 아침밥 먹기 캠페인 실시 ▲우리 쌀 소비 확대 활동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 송춘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NH농협손해보험 임직원은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200명에게 우리 쌀을 전달하고 아침밥 먹기를 장려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서울 서대문구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설 꾸러미 400세트를 전달해 쌀 소비를 촉진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3월 20일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송춘수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임직원들과 아침밥 먹기를 독려하고 있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오른쪽 첫 번째)는 비롯한 ‘해아림 봉사단’이 공기정화액자를 만들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농촌 발전, 실의 증진 위한 보험사업 펼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제도개선 나서

3월부터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서비스’
우리쌀 소비 촉진에 임직원 건강증진까지
취약계층에 우리쌀 사용한 ‘설 꾸러미’ 전달
봉사단 ‘해아림’ 운영, 실질적 사회공헌 활동

농촌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맺고 일손 도와
설해·강풍 등 피해 입은 농가 복구 지원도



▲세계적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 8월초 대구서 친선경기
▲문현빈 제외 전원 침묵…‘최하위’ 한화, 타선 부진에 연이어 고전

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떡국, 즉석 밥 등으로 구성된 설 꾸러미 세트는 서대문구청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송춘수 대표는 “NH농협손해보험은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추진해 우리 농업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보험의 본질 ‘헤아림’

NH농협손해보험은 ‘헤아림 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춘수 대표와 해아림 봉사단 30명은 지난 2월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 공기정화액자 30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기부 활동은 치매안심센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액자 제작 재료인 스칸디아모스는 북유럽산 천연 이끼로 공기정화와 제습 기능이 있어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가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과 함께 여름 보양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행사는 해아림봉사단,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 등 30여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을 돋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7일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농촌 일손돕기, 가뭄·태풍 피해 농가 긴급 구호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농업·농촌’ 지역사회공헌

NH농협손해보험은 농협에서 출발한 회사인 만큼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촌 사랑 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캠페인으로 경기 이천 도달미마을, 충남 서산 뱅길이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지난 11월 NH농협손해보험 해아림 봉사단은 뱅길이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해아림 봉사단 35명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양파 심기, 생강 캐기 등을 실시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께는 건강선물세트 50개를 전달했다. 지난해 6월엔 도달미마을을 찾아 깨 심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영농철 일손을 보탰다.

NH농협손해보험은 “해마다 농번기 일손돕기 및 지역특산물 구입, 농가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NH농협손해보험은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복구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겨울 설해 및 강풍 피해를 입은 경기 평택시, 안양시, 용인시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방조망 폐기와 주변 정리를 통해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피해 확인 및 사고조사를 진행했다. NH농협손해보험 각 부문별 부문장들도 경기, 충남 등 주요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물오른 타격감’ 이정후, 2루타에 멀티 안타까
지…시즌 타율 0.344
▲‘전설’ 최경주, PGA 챔피언스투어 제임스 하디
인비테이셔널 준우승

/사진 뉴시스

▲손흥민, 토크넘서 450경기 출전…“위대한 7인
에 합류”

▲김혜성, 메이저 승격하나…트리플A 동료들과
인사하는 장면 포착